



코스피 2190.47 (+9.74)	코스닥 730.58 (-2.89)
금리 (미국 3년) 1.80 (+0.02)	환율 (원/달러) 1123.90 (-0.80) (12일)



[금융]  
신한금융 '순익 3兆'  
리딩뱅크 왕좌  
1년 만에 재탈환  
04

### 북적이는 전남-광주, 추락하는 구미-울산

# 명암 엇갈린 영·호남 경제지도

# 전국 땅값 9.42% ↑ 서울시 13.87% '1위'

### 2019 표준지 공시지가

강남구 23.13% '최고'



정부가 초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13.87%나 올랐다. 서울은 시·도별 상승률에서 제주도를 4위로 밀어내고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지 평균 땅값은 작년보다 9.42% 올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고가(高價)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이 지표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부담할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명동이나 강남구 등 비싼 땅을 소유한 사람은 보유세가 최대 50% 가량 오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공시

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전년(6.02%)보다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 기업 몰리는 호남

LG전자·현대차·위니아 등 한전대학까지 유치 好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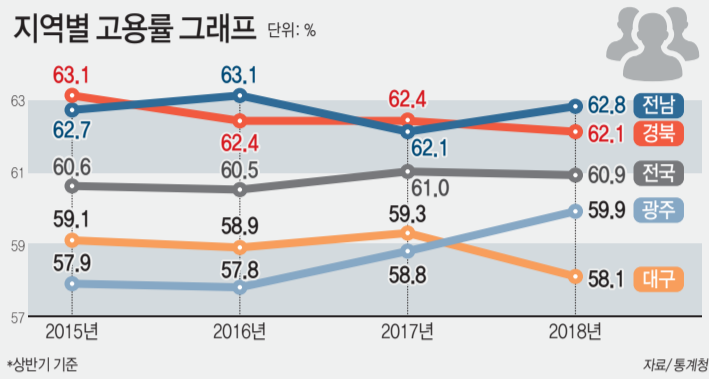
영남과 호남의 제조업 지도가 뒤바뀌고 있다. 주요 공기업과 제조 공장들이 잇따라 호남선에 올라타는 가운데, 영남은 중공업 경제 위기에 기업 상경러시까지 겹치면서 공동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광주시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만나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참가를 논의했다.

과학기술창업단지는 광주 첨단 3지구에 AI 관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LG전자는 잘 갖춰진 인프라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달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합작법인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총 자본금은 7000억원이다. 14일 현대차와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주주공모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대우위니아도 2017년 아산에



있던 공장을 광주로 옮겼다. 대우전자를 인수하면서 대우전자 광주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결정이다. 이전비용은 512억원이 들었으며, 10% 가량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전라남도도 다양한 분야 산업 단지를 유치한 상태다. 2014년 말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이 들어섰으며, 조만간 한전대학까지 새로 세우기로 합의를 마쳤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활발하게 가동되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빛그린산단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 중이다.

호남 지역 고용률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용률이 상반기 기준 2015년 57.9%에서 59.9%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용

률이 0.3%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다. 전라남도도 62.7%에서 62.8%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가 산업단지 유치전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고용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남 지역은 고용률 하락이 눈에 띄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대구광역시 고용률은 2015년 59.1%에서 2018년 58.1%로 1%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이후 광주광역시에 역전당했다. 경상북도 역시 63.1%에서 62.1%로 전라남도보다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영남 지방 고용률 하락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미시에서 LG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수

### 텅텅 비는 영남

중공업-전자 공동화 우려 고용률 등 호남에 뒤져

원으로 동지를 옮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을 자랑하던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몇년째 침체일로를 겪으면서다. 울산 고용률은 2015년 58.9%에서 2018년 58.6%로 떨어진 상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과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로 올라섰다. 역전세라도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광주형 공장 등으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구미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SK하이닉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도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참가 중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미시는 SK실트론과 LG디스플레이 및 삼성전자 일부뿐만 남아있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SK하이닉스 유치가 좌절된다면 어려움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文 대통령, 적극행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현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부각시킨 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신 허용·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혁신경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불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1세



국무회의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즉 '혁신경제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일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의 친절한 안내자 역할 수행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발굴 노력 ▲규제 샌드박스 홍보 및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의 최초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 홍보 ▲사전 컨설팅 제도 등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등을 당부했다. /우승훈 기자 dn1114@



다시 찾아온 불청객 경기도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오산 시내가 뿌연다. /연합뉴스

# 與, '구밀복검' 정책에 대기업 깊은 한숨

<입에는 꿀을 발랐으나 속에는 칼을 숨김>

여당, 상법개정안 추진 경영권 침탈 악용 우려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재계의 한숨이 깊다.

12일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가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제서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국회가 해결해주라는 입장인데, 여당이 오히려

려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법 개정안 추진이)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는 것일 뿐, (기업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여당은 기업 경영의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맡은 조정석 의원은 이날 "불공정거래 근

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안 적극 나서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

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2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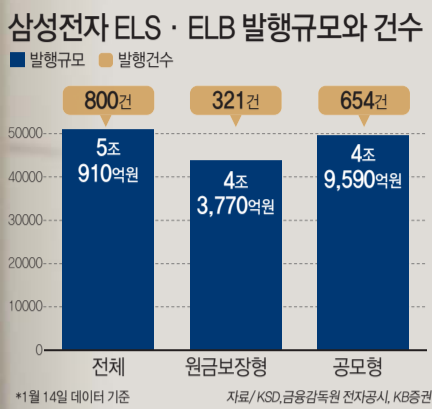
# 극적반등, 녹인구간 탈출... 5조 파생상품 '안도의 한숨'

(손실구간)

(ELS·ELB)



블랙록 "저평가" 주식 5.03% 보유  
ELS·ELB의 86% '원금보장형'  
NH·KB證, 삼전 목표주가 상향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5조원 규모)의 손실구간(녹인) 진입 공포가 사그라 들었다. 반도체 시장의 반등과 외국계 큰 손이 삼성전자를 대거 사들이고 있어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특별관계자 15인과 함께 삼성전자 주식 5.03%(3억39만1061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증권가에서는 블랙록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도.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달러로, 지난해(4770억달러)보다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파생상품시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한때 3만6850원(1월 4일)까지 추락하자 삼성전자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리더십과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으로 바뀌면서 녹인배리어(원금손실구간) 걱정을 덜게 된 것이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ELS·ELB는 1월 중순을 기준으로 800건, 5조908억원

(잔존하고 있는 ELS·ELB 기준)이다.

중목형 ELS는 코스피 등 시장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담은 지수형 ELS와 달리 개별 기업 2~3개를 묶어 기초자산으로 한다.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녹인(Knock-In)' 공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 투자자들이 '녹인' 공포에 떨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녹인' 공포가 과하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기초자산의 ELS 가운데 원금보장형이 321건, 4조376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체의 86% 규모다.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ELB의 86%는 원금손실과는 무관한 ELS라는 의미

이다. 동시에 공모형 ELS·ELB 비중이 97.4%에 달했다. 보통 녹인을 이야기할 때 '사모 ELS가 많아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발행 가격대와 '녹인' 가격과의 차이도 괴리가 커졌다.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 대부분이 3만6000원~3만9000원 부근에서 발행됐다.

KB증권 이종호 연구원은 '원금보장형과 '녹인' 상품, ELS를 뺀 대부분의 녹인은 2만2000원~2만4000원에 존재해 그 규모도 2781억원 규모이다'면서 "녹인의 시장도 3만7000원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 기초 파생상품의 손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행사가 가격이 만기에 다가갈수록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스텝다운형' ELS는 녹인배리어가 최초 기준가의 60%인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 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

주가가 오르면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들의 자신감이 첫 번째 이유다.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계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는데 어떤가요"라며 '반도체 수확 사이클(초호황)'이 주춤하는 양

상에 대해 우려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며 "위기는 항상 있었지만, 이유를 밖에서 찾기보다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올렸다. 도현우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IT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이후 실적 추정치를 올리면서 목표주가가도 상향 조정했다"며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도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이후 반도체 산업은 점진적 회복 국면이 기대된다"며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전략은 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 이번 하락 사이클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4만5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올렸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대우조선 인수후보자에 현대중공업

산은, 삼성중 인수제안 불참 통보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이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12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제안에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다"며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인수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조선통합법인을 만들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별도법인으로 편입되는 방식의 조건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당시 산업은행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과 대우조선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삼성중공업에도 인수제안서를 보냈지만 삼성중공업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현대중공업이 인수후보자로 최종 확정된 것.

/나유리 기자 yul115@

합의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5973만8211주(지분율 55.7%)를 신설 지주사에 모두 출자한 뒤 신설 지주사 신주 1조2500억원의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85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되받아 18% 지분율로 2대 주주가 된다. 지주사의 최대주주는 26%의 지분을 가진 현대중공업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예정된 본계약 체결을 위해 이사회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3월 초 이사회 승인시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확인 실사 등 제반 절차 진행한 후 조선통합법인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당행 보유 대우조선주식 현물출자, 조선통합법인의 대우조선 앞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우조선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땅값 광주 10.71%, 부산 10.26% 상승

>> 1면 '전국 땅값 9.42%...'서 계속

앞서 예정안(9.49%)보다는 0.07%포인트 내렸으나, 2008년(9.63%) 이후 11년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은 13.87%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작년 상승률(6.89%)의 두 배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했다.

서울 다음으로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62.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가 토지의 경우 이보다 높은 70%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시지가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8년 4600만원에서 2019년 6090만원으로 32.4%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선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이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JY의 글로벌 행보... 이번엔 UAE서 5G 공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세' 아부다비 왕세자 등과 만나  
삼성-UAE 협력방안 모색한 듯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중동을 방문해 현지 통신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1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UAE 공군 부총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부다비 왕세자 등 현지 유력 인사들과 만났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개인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이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 부회장과 왕세제는 삼성전자와 UAE 업체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G 통신과 IT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UAE에 차세대 통신망 구축시 삼성전자를 장비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아부다비 왕세자가 SNS에 올린 사진.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아부다비 왕세자. /아부다비 왕세자 SNS 캡처

국 시안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2라인 증설 현황을 둘러보고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후 유럽을 둘러 두바이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5G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4대 미래성장사업으로 5G를 택하고 22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도 등을 방문해 시장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이 만난 아부다비 왕세자는 UAE에서 실제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해 3월 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원전사업등을 논의한 적도 있다.

한편 현지언론은 이 부회장이 2019년 세계 정부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정상회의는 각국 정부 관계자와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두바이에서 열리는 행사다. 올해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등이 함께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다중소송제·집중투표제 등 밀어붙이기"

>> 1면 '興 '구밀복검' 정책...'서 계속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엘리트 사태를 보고도 (여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는 걸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허무는 꼴"이라며 "숨통이 조인다"고 비꼬았다.

학계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도, 반대로 기업 공격으로 돈을 털어낼 수도 있다"며 "양날의 검"이라고 강조했다. 위 교수는 "기업 배당금을 높이고, 회사를 분리하고 쪼개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기업을 얼마든지 말아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진·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 위해 정부·정치권에 요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상위 0.4% 정조준, 11년만에 최대폭... 강남 보유세 50%↑

## 세금 얼마나 오르나

고가 토지 중심 인상... 형평성 높여 세 부담·건보료 인상 등 영향 미미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13.87%)'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장에선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고가(高價)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인 만큼 일반 토지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서울 강남·중구·영등포구는 20%안팎 ↑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이 9.42%, 서울이 13.87%로 각각 전년 대비 3.4%포인트, 6.98%포인트 올랐다. 이는 모두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중심상업지구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m<sup>2</sup>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토지(전체의 0.4%) 상승률은 20.05%인 반면, m<sup>2</sup>당 2000만원 이하 일반 토지(전체의 99.6%)의 변동률은 7.29%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토지(전·담·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땅인 서울 중구 명동 8길(총무로1가, 169.3m<sup>2</sup>) 네이처리퍼블릭(169.3m<sup>2</sup>) 건물의 토지는 m<sup>2</sup>당 공시지가가 2018년 9130만원(154억5709만원)에서 2019년 1억 8300만원(309억8190만원)으로 두 배(100.44%) 가량 뛰었다. 이 토지는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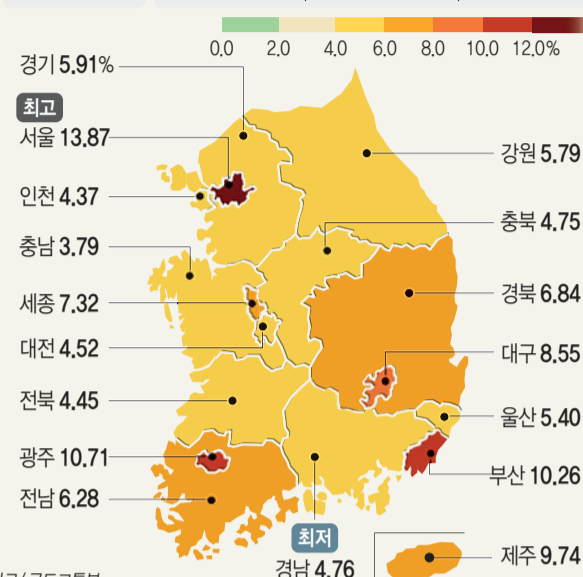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이 토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전국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필지는 모두

## 전국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2019년 1월1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기준 (전년 대비)

전국 ▲9.42% 수도권 ▲10.37 광역시 ▲8.49 시·군 ▲5.47



자료/국토교통부

##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변화

상업용지 기준

용산구 이태원 000토지 면적 60.0m<sup>2</sup> 종로구 화동 000토지 99.2m<sup>2</sup> 관악구 봉천동 000토지 134.5m<sup>2</sup>

구분	2018년	2019년	변동률 (%)
<b>공시지가</b>			
용산구 이태원 000토지 (면적 60.0m <sup>2</sup> )	4억5,000만원	4억8,720만원	▲8.3%
종로구 화동 000토지 (면적 99.2m <sup>2</sup> )	7억9,161만6천원	8억7,891만2천원	▲11.0%
관악구 봉천동 000토지 (면적 134.5m <sup>2</sup> )	5억3,262만원	5억9,314만5천원	▲11.4%
<b>보유세</b>			
용산구 이태원 000토지	89만4천원	98만8천원	▲10.5%
종로구 화동 000토지	175만5천원	197만5천원	▲12.5%
관악구 봉천동 000토지	223만7천원	249만1천원	▲13.8%
<b>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b>			
용산구 이태원 000토지	월 32만원	월 32만원	0%
종로구 화동 000토지	월 54만원	월 54만8천원	▲1.5%
관악구 봉천동 000토지	월 34만6천원	월 35만1천원	▲1.4%

※보유세: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건강보험료: 법인재산, 직장가입자 등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연암뉴스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땅값은 대부분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전국 최저지가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놀옥도리 토지(임야, 1만3686m<sup>2</sup>)는 2018년 m<sup>2</sup>당 공시지가가 205원에서 올해 210원으로 2.4%(5원) 상승에 그쳤다.

### ◆보유세·건보료·임대료 인상 얼마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나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연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처럼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우려도 적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 5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

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오는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표준지 공시지가 톱10, 명동이 휩쓸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1위' 1~8위 부지, 전년대비 두배씩 올라



12일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으로 평가된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연암뉴스

12일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톱(Top) 10'은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총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는 16년 연속 전국 최고 땅값 자리를 지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의 공시지가가 m<sup>2</sup>당 1억8300만원으로 전년(9130만원) 대비 두 배(100.4%) 증가했다. 평(3.3m<sup>2</sup>)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억390만원이다.

이 곳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표준지 중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위 필지는 모두 서울 중구가 휩쓸었다. 특히 1위부터 8위까지의 필지는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두 배씩 뛰었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m<sup>2</sup>)로 m<sup>2</sup>당 8860만원에서 1억 7750만원으로 100.3% 올랐다. 3위인 총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m<sup>2</sup>)는 m<sup>2</sup>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100.1% 뛰었다. 4위는 화장품 가게 '토니모리'(71m<sup>2</sup>)로 8540만원에서 1억7100만원으로 100.2% 상승했다.

이어 명동2가 'VDL' 화장품 판매점(66.4m<sup>2</sup>)이 8360만원에서 1억6750만원으로 100.3% 올라 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명동2가 신발점 '레스모아'(112.9m<sup>2</sup>) 1억 6450만원, 화장품점 '라네즈'(108.4m<sup>2</sup>) 1억 6250만원, '더샵'(81.3m<sup>2</sup>) 1억 4850만원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4%, 100.1%, 100.4%씩 올랐다.

9위인 총무로1가 '아이오페'(466.1m<sup>2</sup>) 1억1500만원, 10위인 명동1가 의류매장 '탑텐'(195.4m<sup>2</sup>) 1억1100만원은 상승률 100%를 넘기지 못했으나, 모두 m<sup>2</sup>당 1억원을 넘겼다. /채신화 기자

# 신한생명

## 디지털 금융으로 따뜻한 보험을 그려갑니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금융 모두가 누리는 신한생명의 따뜻한 보험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  
AAA 11년 연속 획득(NICE신용평가)

**2018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한국소비자포럼)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우수플래너 9년 연속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6년 연속 수상(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점점부문 2년 연속 1위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신한생명



# 신한금융, 순익 3兆... 1년 만에 '리딩뱅크' 왕좌 재탈환

878억 차이로 KB금융 누르고 '1위' 금융투자·생명 등 비은행부문 약진 7년 만에 3조원대... 사상 최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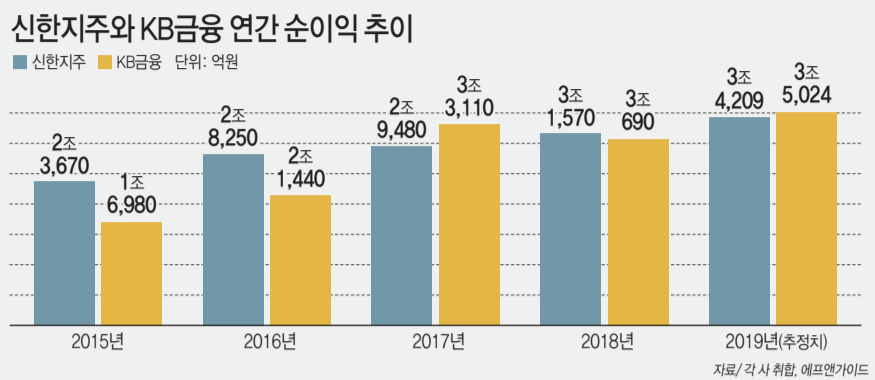
신한금융지주가 1년 만에 KB금융지주를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당초 연간 실적 기준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도 KB금융이 리딩뱅크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KB금융이 지난해 4분기에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실적부진)'를 기록하면서다.

이미 주식시장에서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이 KB금융을 앞지른 데 이어 실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 ◆2018년 실적, 신한(주)KB금융

신한지주는 12일 지난해 동기순이익이 3조1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KB금융 3조689억원을 878억원 차이로 앞섰다.



신한지주 순이익은 지난 2011년 3조 1000억원 이후 7년 만에 3조원 대에 재진입한 것은 물론 사상 최대 실적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가계 부문의 균형 있는 자산 성장과 순이자마진(NIM)이 안정화되면서 은행이 그룹 실적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이와 함께 금융투자, 생명, 캐피탈 등 비은행 부문의 약진을 통해 그룹 차원의 경상이익 창출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글로벌 및 투자은행(IB) 시장

에서도 원 신한(One Shinhan) 전략을 바탕으로 그룹사 간 협업이 극대화되며 뛰어난 성과를 냈다"며 "은행의 글로벌 부문 순이익은 3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성장했고, 그룹의 글로벌자산시장(GIB)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도 4791억원으로 58.1%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KB금융의 작년 순이익 3조689원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수준이다. 2년 연속 '3조 클럽'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2001억원

으로 기존 추정치를 50% 이상 밑돌았다. 은행 희망퇴직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났고, KB증권과 KB손보의 부진도 겹쳤다.

### ◆올해 실적 진검승부 펼쳐지나

올해 승부는 예측하기 힘들다. 작년 순이익 차이가 800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12일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지주와 KB금융의 올해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3조4209억원과 3조5024억원이다. 815억원 차이다. 증권사에 따라 신한지주와 KB금융 중 누가 우세할 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KB금융이 지난 몇 년간 현대증권(현 KB증권)과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올 해는 신한지주가 M&A와 성장동력 확충으로 반격에 나서게 모양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1일 오렌지라이프가 신한금융그룹의 14번째 공식 자회사가 됐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시장 등 생명보험시장 내 그룹

위상 제고와 함께 신한금융의 고객·채널 기반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 글로벌자산시장(GIB) 및 고유자산운용(GMS) 부문과 협업을 통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윈 윈(One Shinhan) 시너지 창출 방안을 마련해 그룹 가치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지주는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아시아신탁도 인수했다. 이와 함께 전일에는 핀테크업체 토스와 함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도전을 공식화했다. 신한은 또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신한금융투자 자본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KB금융 역시 M&A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환 KB금융 부사장(CFO)은 지난 8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산관리(WM)와 상품개발(제조)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고객 타깃 공략(세그먼트)에 강점이 있는 카드사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신한생명 새 수장 성대규 내정

(보험개발원장)

재경부·금융위 등서 보험업 22년 혁신적인 제도 추진하는 '보험통'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내정자

신한생명 사장에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내정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성대규 현 보험개발원장을 신한생명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12월 자경위에서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신한생명 이병찬 사장의 후임으로 정문국 현 오렌지라이프 사장을 내정할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오렌지라이프의 신한금융그룹 편입 직후 정 사장 본인이 직접 신한생명 사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1일 자회사 편입이 완료된 직후 정 사장이 신한생명으로 자리를 옮기기 보다 오렌지라이프의 강점인 FC채널을 중심으로 영업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강화하겠다고 자경위 측에 신한생명 사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자경위 관계자는 "오렌지라이프의 안정적인 그룹 편입과 더불어 향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그룹 보험 사업을 순조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오렌지라이프 경영진이 가진 안정적 리더십 발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자경위에서는 정 사장의 고사 의견을 수용하고 신한생명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재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생명 사장으로 내정된 성대규(1967년생) 후보는 재경부, 금융위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만 22년 넘게 수행해온 '보험통'이다. 관료 출신임에

도 혁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추진력도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금융당국에서 보험제도와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방카슈랑스를 도입하고, 상해·질병·간병보험 같은 제3보험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의 시행을 추진해 왔다.

자경위 관계자는 "그룹 내 보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양사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후 그룹의 보험 사업라인의 경쟁력 강화에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추천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자경위를 마지막으로 오렌지라이프를 포함한 그룹 14개 자회사의 CEO 후보 추천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새로 추천된 CEO들은 그룹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젊고 능력 있는 차세대 리더들과 업권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인재들로 균형감 있게 조화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내정된 성 내정자는 신한생명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에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신한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 오늘 재상장... "주가 전망 밝음"

### 자기자본비율 1년 내 회복 전환 기대

13일 재상장을 앞둔 우리금융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전망이다.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앞둔 우리금융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배당정책, 전산시스템 안정화 등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 이후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표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존 내부등급법을 적용했을 때 15%대였던 자기자본비율이 11%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다. 또 위험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를 사들이기도 어려워진다. 인수합병을 위한 실타마련이 어려워 자회사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표준등급법과 내부등급법을 병행 산출한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표준등급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년 초 적용될 내부등급법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적용되는 표준등급법에 따라 3.8%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 있는 자기자본비율도 1년 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관계자는 "1년 뒤에 내부등급법 적용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행산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과 지주사의 내부등급법은 그 모형이 다소 차이가 있어 금감원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배당 정책도 긍정적인 주가흐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2017년 배당성향을 26.7%로 정하며

다른 금융지주보다 높은 배당성향을 확정했고, 추후 완전 민영화 위한 주가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손 회장이 배당성향 확대에 나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배당성향을 전년 수준인 26.7%로 가졌을 때 올해 주당배당금은 750원으로 5.1%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을 결정하겠지만 지난 11일 실적발표를 통해 공개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9.62%라는 점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이익률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이 지난해 도입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인 위니(WINI)도 완전한 안정화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위니는 유닉스(UNIX) 계열의 전산 시스템으로 유지와 보수가 쉽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도입 초기에는 트래픽 용량 초과로 인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뱅킹 등에서 일부 장애가 있었으나 그 이후 서버 증설을 하는 등 전면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오류를 없앴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영 기자 hong93@

## NH농협銀, '거액익스포저 관리시스템' 구축

한도관리 효율성 제고하고 이슈 기업 상시 모니터링도

NH농협은행은 거액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액익스포저 관리시스템(NH-LEMS)'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NH-LEMS은 2020년 도입예정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거액익스포저 관리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체

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실질적인 거액익스포저 통제로 익스포저 관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또 기존의 신용공여 한도관리시스템을 NH-LEMS에 탑재해 한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로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관리시스템으로 감독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이슈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됐다. 개별 기업

의 현안이 발생하면 익스포저 현황 등을 적시에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허충희 리스크관리부 부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감독규제에 선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슈기업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관리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현대·기아車, 쌍용車

# 글로벌 시장 공략 CEO들 광폭행보

현대·기아차와 쌍용자동차가 올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해외 판매량은 668만712대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신흥시장 공략에 성공한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미국 시장 점검에 나섰다. 쌍용차는 현대차 출신 '해외 영업통' 예병태 부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

반면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는 노사간 갈등으로 내수는 물론 수출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 ◆국내 車 업체 해외 시장 공략 박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12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올해 들어 첫 해외 현장 행보다. 정 수석부회장은 12일 김포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로 향했다. 업계에서는 정 수석부회장이 실리콘밸리의 미래차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매년 정 수석부회장은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지상 최대의 가전쇼인 CES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글로벌비즈니스센(GBC) 건립, 수소전기차 로드맵 발표, 광주형 일자리사업 등 국내 현안

정의선 수석부회장, 美 출장행  
현대·기아車, 美 판매량 호조  
예병태 사장, 수출 제고에 총력  
쌍용車, 중동·아프리카 등 진출

에 집중하기 위해 CES에 불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막바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9월 승진 이후 곧바로 미국 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를 접촉해 관세 부과 이슈와 관련 호혜적 조치를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미국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는 현대차그룹 실적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 4.9%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를 오는 4~5월께 북미시장에서 양산할 예정이며 기아차도 상반기 중으로 텔루라이드를 선보인다.

쌍용차는 올해 현대차 '영업통' 출신인 예병태 사장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 제고



2019년도 현대자동차그룹 시무식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총괄부회장.

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모회사인 인도 마힌드라와 함께 연내 미국에 진출할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지난해 하반기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중남미 시장에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주에 직영 해외판매법인 설립하며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섰다. 멜버른, 시드니, 중소도시 등 3단계의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케팅과 서비스까지 모두 책임지는 사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수출시장을 확대 진출할 계획이다.

다만 쌍용차의 미국 진출 방식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현재로서는 마힌드라를 등에 업고 미국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지엠·르노삼성

# 내수부진·노사갈등 해외 수출까지 몸살

한국지엠, 지난해 조단위 손실 해외 철수로 물량 감소 불가피  
르노삼성, 신차 부재·내수 최악 파업 지속엔 신뢰 바닥으로 '뚝'

### ◆르노삼성·한국지엠 긴 '타일' 예상

내수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은 올해 해외 판매 전략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해 조 단위 손실을 기록한 한국지엠은 올해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한국지엠의 수출 비중은 북미와 유럽이 각각 53%, 31%인데, 유럽사업을 PSA에 매각하면서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M이 해외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지엠의 수출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트랙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지엠이 연구개발을 주도한 트랙스는 현재 부평공장에서 생산돼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지엠 전체 수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펜 모카, 부익 앙코르라는 이름으로도 판매된다.

한국지엠은 수출보다 내수 시장을 살리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해 내수판매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내수 시장 회

복이 관건으로 떠오른 만큼 2019년 대형 SUV 트레버스와 픽업SUV 콜로라도의 출시로 내수시장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을 신경쓸 겨를이 없다. 특히 내수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갈등과 함께 신차 부재로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에 르노삼성의 전체 생산 물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닛산 로고도 올해 9월 생산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르노삼성은 GM 군산 공장을 재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로스 모저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설 명절 전 르노삼성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높은 성과를 이뤘지만 (현재처럼) 파업이 지속되면 공장 가동시간이 줄고 쌓아온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르노삼성과 로고 후속 차량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공장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까지 3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에 성공해왔던 르노삼성은 2018년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무려 8개월여 동안 28차례에 달하는 부분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쏘렌토 260만원 할인... '통큰' 이벤트

기아車 '익스체인지 리워드' 프로모션

기아자동차가 쏘렌토 구매시 최대 26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통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아차가 2020년형 쏘렌토 출시를 맞아 기존 RV 고객들에게 ▲차량가격 30만원 할인 및 30만원 캐시백 지급 ▲K-스타일케어 무상 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익스체인지 리워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2월 동안 운영되는 이번 '익스체인지 리워드' 프로그램은 브랜드에 상관 없이 RV 차량을 보유 중인 고객이 기아 레드멤버 전용카드를 이용해 2월 중 쏘렌토를 출고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재 RV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기아 레드멤버 전용카드를 세

이브오토 프로그램을 이용, 차량가격 중 2000만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해 쏘렌토(구형모델 포함)를 구매하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RV 차량을 매각(이전, 말소)하면 차량가격 30만원 즉시 할인 및 30만원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익스체인지 리워드 프로그램 이용 고객이 기아차의 신차케어 프로그램인 'K-스타일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시 차감됐던 포인트를 4월 중 전액 재적립해준다.

'K-스타일케어' 서비스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프로그램으로, 출고 후 1년 이내 발생한 외관 손상에 한해 최대 3회까지 ▲경형 100만원 ▲소형 150만원 ▲중대형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팰리세이드·G70, 'iF 디자인상' 휩쓸어

외관 디자인·인간공학설계 호평  
씨드 스포츠왜건 등도 본상 '경경사'

현대·기아자동차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12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와 콘셉트카 르 필 루즈가 '2019 iF 디자인상' 제품·수송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국내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된 신개념 플래그십 대형 SUV로 디자인에서부터 공간 활용성, 주행성능, 안전편의 사양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상품성을 갖췄다.

아울러 풍부한 볼륨감과 입체적인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을 바탕으로 강인한 이미지와 대담한 디자인을 통해 당당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만족하는 외관을 완성 했으며 인간공학설계와 고급 소재로 실내 감성품질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팰리세이드는 사전계약 첫 날 3468대가 예약된 데 이어 사전계약기간 동안 총 2만 506대가 예약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기아차는 프로씨드와 씨드 해치백, 씨

드 스포츠왜건이 각각 수송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경경을 맞았다. 프로씨드는 유럽 시장 전략 차종이다. 슈팅브레이크 보다 타입의 5도어 모델로 스포티함을 더 과감한 디자인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콘셉트카 에센시아와 스포츠 세단 G70

및 서울 2017 출시 기획 행사가 본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기획 행사는 G70이 시장에 나온 2017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안드라 테이와 그렌 스테파니 등 유명 가수와 관객 1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강사: 김민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LG U+ “이통사 아냐... 전 세대 망라 콘텐츠 미디어사”

시니어 위한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 출시

키즈, 2030, 4050세대까지  
IPTV 세대별 라인업 완성

건강정보 ‘우리집 주치의’ 등  
자체제작 영상 158편 서비스



모델들이 ‘U+tv 브라보라이프’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은퇴 이후 50대 이상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유아용 콘텐츠 ‘아이들나라’, 10대 ‘아이들라이브’, 2030 세대를 위한 ‘넷플릭스’ 제휴에 이어 세대별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건강에서 취미, 여행까지 50대 이상 세대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고 편하게 즐기는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 이견영 홈미디어상품담당 상무는 “은퇴 이후

에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건강, 여행, 취미 등 6가지 영역의 구성을 통해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진행한 50~60대 대상 고객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55세

서 54세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중은 15.5%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배우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등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LG유플러스의 U+tv 브라보라이프는

50대 이상 고객 특화 자체 제작 영상 158편을 탑재해 무료로 제공한다. 기존 TV 콘텐츠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콘텐츠 제작자라기 보다는 기존에 없던 새 시장을 개척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통해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 세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출연해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우리집 주치의’ 90편을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 제작했다. 우리집 주치는 서울대학교 전문의와 40분간 관심 질병의 필수 정보에 대해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는 건강 전문 프로그램이다.

창업 노하우를 담은 ‘나의 두 번째 직업’ 9편·고급 스마트폰 활용법 영상 22편과 자연 풍경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영상 32편을 자체 제작했다.

서비스 화면은 전체적으로 눈이 편안

한 녹색을 사용했다. 또 기존 서비스 대비 글씨가 30% 커졌고, 직관적 아이콘과 이미지를 활용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부터 유아층을 타깃으로 ‘아이들나라’를 선보인 데 이어 2030세대를 위한 ‘넷플릭스’ 독점 제휴를 한 바 있다. 이번 브라보라이프 출시를 통해 키즈, 2030, 4050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별 라인업을 완성한 셈이다.

이견영 상무는 “아이들나라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도 같이 타깃을 하는 만큼 브라보라이프는 그 연장선상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며 “재미, 교육 등 여러 콘텐츠 측면에서 IPTV 서비스가 경쟁사와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tv 브라보라이프는 기존 U+tv 이용자는 별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UHD2 셋톱 이용 고객 125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KT, 국내 최초 5G백본망에 메시구조 적용 배터리·ECC·태양광, 화학업계 ‘3대 미래먹거리’

트래픽 전송 지연 대폭 감소



KT직원들이 5G 백본망에 메시 구조를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있다.

KT

KT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5G 백본망에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메시(Mesh) 구조를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5G에서는 통폐합부설선(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20기가비피에스(Gbps)의 전송속도와 10분의 1의 지연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5G의 요구사항에 맞춰 대용량 트래픽을 초저지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간 트래픽 전달 시 발생하는 백본망에서의 지연을 줄여야 한다.

KT는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5G 백본망에 메시 구조를 적용하고, 지역 간 트래픽 전송 지연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기존 유무선 통신의 백본망에는 트래픽 처리 구조 상 지역 간 트래픽 처리 시 반드시 수도권 센터를 경유해야만 해 전송 지연이 발생했다. KT가 5G 백본망에 적용한 메시 구조는 전국 주요 지역센터끼리 직접 연결하는 그물형 구조다. 이를 적용

하면 전국의 주요 지역 센터 간 직접 연결 경로가 생성돼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 간 트래픽 처리 시 수도권을 경유하는 구조의 기존 백본망에서는 약 16ms 전송지연이 발생했지만, 메시 구조의 5G 백본망에서는 약 6ms의 전송지연으로 최대 63%까지 지연 시간이 줄어든다.

지역센터 간 연결 경로도 다양해진다. 특정 구간 장애 발생 시에도 다양한 대체 경로 확보가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LG화학, 車 배터리 수주량 증가세 롯데케미칼, 美ECC공장 가동 눈앞 한화케미칼, 태양광시장 성장 수혜

국내 화학사들이 배터리와 ECC(에탄크래커) 및 태양광에서 사업을 키워가면서 급격한 불황을 맞은 기초소재부문 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업계 3사로 꼽히는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케미칼이 각각 배터리와 에탄크래커, 태양광 사업을 필두로 올해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LG화학은 기초소재부문에서 수요가 위축된 반면, 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 BEP(손익분기점)을 달성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LG화학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선정, 수년간 연구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에 규모있는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LG화학은 지난 4분기에서 배터리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호영 LG화학 사장은 “무역 전쟁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여수 NCC공장 정기 보수 영향으로 기초소재부문 이익 규모가 축소됐다”면서도 “배터리 부문에서는

분기 매출 첫 2조원을 돌파, 그 중 자동차 배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자 LG화학의 배터리 수주량도 덩달아 급증, 그 결과 LG화학의 지난해 전지부문 매출은 사상 최고치(6조5196억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조96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33%나 감소한 수치다.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시황 악화 및 유가 등락에 따른 구매 관망세 지속, 전반적인 수요약세 우려감 등으로 주요 자회사들(롯데첨단소재·롯데케미칼타이탄)의 수익성이 감소했다.

올해 롯데케미칼은 상반기에 본격 가동되는 미국 ECC 공장 및 말레이시아 타이탄 증설 물량 효과 등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만 5년을 거친 미국 ECC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연 100만톤의 에틸렌과 70만톤의 에틸렌 글리콜(EG)이 생산된다. 이로써 롯데케미칼은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450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게 돼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ECC 가동

으로 연간 추가적으로 1조원 규모 매출과 2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올해 태양광시장 성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0년에 태양광사업에 처음 진출, 태양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꾸준히 키워왔다.

올해 특히 태양광사업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보조금 정책 변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우호적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화케미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시장의 2019년 신규 설치량은 지난해보다 20%~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화케미칼은 미국에 1.7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장은 올해 1분기 안에 상업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공장이 가동되면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셀에 이어 모듈시장에서도 글로벌 생산량 1위에 오르게 된다.

또 2020년부터 미국에서 신규 태양광 발전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올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KT, 영업이익 1조2615억... 전년비 8% ↓

유·무선사업 매출 감소 큰 영향  
아현지사 화재도 4분기 반영돼



하락했다. 지난해 무선사업 매출은 선택약정할인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KT가 무선 매출의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여파도 작용했다.

KT는 신 회계기준(K-IFRS 1115호)을 적용해 지난해 매출 23조4601억원, 영업이익 1조2615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0.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3% 줄었다. 인건비 증가와 무선 매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요금감면 비용이 4·4분기에 모두 반영되며 실적 부진을 초래했다.

실제 4·4분기의 매출은 5조9945억원을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고, 영업이익은 95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8.4%

확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줄어든 7조40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무선 가입자는 고객맞춤형 신규 요금제의 호응으로 같은 기간 5.5% 늘어난 2112만명을 기록했다. 일반이동통신(MNO) 순증 규모는 9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이 가운데 휴대전화 가입자 순증은 14만명이었다.

유선사업 매출도 4조7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금융사업 매출도 전년 대비 2.4% 줄어든 3조444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조4492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방어를 했다.

/김나인 기자

## 제주항공, 창사 이후 첫 年매출 1조 돌파

지난해 영업이익 1012억 기록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2594억원, 영업이익 1012억원의 실적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709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매출액은 전년(9964억원) 대비 26.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0.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 등 비용 증가 요인에도 지난해 4분기에도 54억원의 이익을 내 2017년 수준을 유지하며 연간 기준 2011년부터 8년 연속, 분기 기준 2014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제주항공은 역대 최고 매출 달성의 요

인으로 ▲기단 확대(8대 순증)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신규 취항 등 시장 점유율 확대 ▲에어캐피 등 부가매출 증가 ▲내국인 최대 출국 수요지인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에 대해 거점 다변화 등 유연한 노선 운용으로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주항공의 노선은 2017년 45개에서 2018년 67개로 늘었으며, 부가매출은 같은 기간 789억원에서 988억원으로 25% 신장했다. 제주항공은 또한 급격한 유가 상승에도 기단을 지속 확대해 정비비와 리스료 등 주요 고정비용의 효율적인 분산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갖춰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양성문 기자 ysw@



국내 최대 초광대역 주파수의  
**압도적인 속도**

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독자적인 양자암호기술로 구축한  
**빈틈없는 보안**

세계최초, 대한민국 5G시대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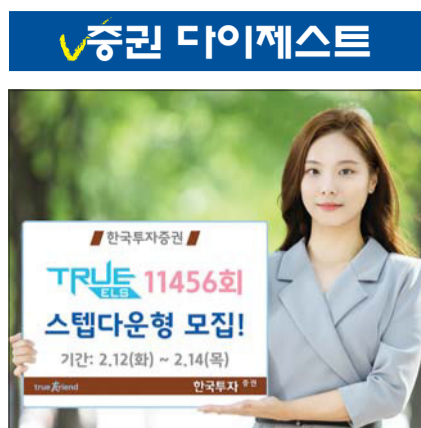
압도적 속도와 철저한 보안을 갖춘 5GX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한국투자증권

TRUE ELS 10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4일까지 홍콩 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ELS 11456회'를 총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 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6·12·18개월), 80%(24·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5.4%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 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16.2%(연 5.4%)의 수익이 지급된다. /김문호 기자

# 바이오 등 코스닥 진입 쉽게... 업종별 상장심사

## 한국거래소, 주요 추진사업 발표 “미래전략TF팀 설치 등 조직개편 미래코스닥 대표기업 발굴·지원”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바이오와 핀테크 등 다양한 업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업종별 상장 심사·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9 코스닥본부 중점 추진사업' 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최근 산업 동향을 반영해 바이오와 4차 산업, 모바일 게임 등 기존에 없던 업종이 시장에 출현하고 있다”며 “이런 기업을 위해 각 산업의 특성을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뉴시스

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업의 상장심사 시 임상진행 정도, 개발 약품의 종류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의 중점심사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업종별 상장심사 세부방안을 마련해 2019년 상반기 중 상장심사에 적용하고 2019년 말까지 업종별 상장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도 힘 쓸 예정이다.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관사인 투자금융(IB)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 기업을 조기 발굴해 기업공개(IPO)를 통한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코스닥 대표기업 발굴과 상장유치도 주력한다.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가총액 상위 잠재 유니콘 기업 등 예비 기업군을 선정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코스닥본부 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코스닥본부 내에 오는 18일부로 ▲미래전략TF(코스닥발전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협력) ▲혁신성장

지원부(성장기업부와 상장유치실을 통합해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조달부터 코스닥 상장 컨설팅까지 수행) ▲상장관리(상장·퇴출기업 대응) 등 세개의 조직이 설치된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부터 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연금의 상대로 한 투자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욱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및 기관 비중이 현재 14%대인데 향후 25% 정도로 높아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상장을 촉진하는 한편 시장의 질을 관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닥시장이 글로벌 혁신 기술주 시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하나금융투자

연 7% ELS 등 4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15일까지 리자드 상환기회를 추가해 총 3번의 리자드 상환 기회가 주어질 멀티 리자드 ELS 등 파생 결합상품 총 4종을 모집한다.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 225), 미국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 5.0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341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원유(WTI)와 두 가지 지수(HSCEI·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 7.0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 3227회'도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 불법사채 353% 폭탄이자, 채무조정엔 환급도 가능

## 대부금융협회, 작년 1762건 분석 264건 재조정, 초과 3천만원 반환

#.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을 찾아보다 '대출나라'라는 곳을 알게 됐다.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만난 대출업자는 “처음부터 큰 돈을 어떻게 믿고 주냐”며 “첫 거래에서 30만원을 빌려줄테니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잘 갚으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빌려 주겠다”고 했다. 그는 급한 마음에 30만원을 대출받고 일주일도 지난 후 5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대출업자에게서는 “입금시간이 몇 시간 지연됐으니 첫 번째처럼 30만원 밖에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30만원을 다시 대출받은 그는 사정이 힘들어져 매주 20만원씩의 이자만 내고 있다. A씨는 “연체가 되거나 당일날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대출업자가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반말로 화내며 협박을 한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대출업자 이름이나 주소, 상호조차 몰라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

### 〈2018년 불법사채 피해 이자계산 결과〉

구분	거래건수	평균 대출금액	평균 거래기간	연환산 평균금리	
사법당국 의뢰	970건	3,923만원	110일	228%	
피해자 의뢰	채무조정요청	608건	468만원	70일	1286%
	이자율계산요청	184건	4,564만원	240일	596%
	소계	792건	1,404만원	85일	780%
합계	1,762건	2,791만원	96일	353%	

\* 연환산 평균금리(금액기준가중평균) : 연환산 이자총액 / 대부원금총액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금리가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일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선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썩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한 후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홍민영 기자 hong93@

## 공사추진능력·품질인정 현대건설 ‘감사패’ 받아

### 헬리오시티 조합

현대건설이 최근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 조합으로부터 공사추진능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준공 감사패’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현대건설이 기한내 헬리오시티 준공 승인을 받아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조합의 감사를 표시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헬리오시티 사업을 수행하며 비주관 시공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조합과 업무를 함께하고, 인허가관청과 협조해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운영능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지난달 31일 현대건설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헬리오시티는 설립인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조합사무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김태균 상무, 헬리오시티 주영열 조합장, 현대건설 김경호 부장, 이문희 부장. /현대건설

부터 준공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었다”며 “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김태균 상무는 “모든 세대의 입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는 사업기간 15년, 단지 규모도 9510가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주건사), 삼성물산 등 3곳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대부업체 연체 이자율 약정이자율 +3% 제한

정부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연체가산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이 연 3%로 규정된다. 연체가산율은 대부업약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의 차이를 말한다.

앞서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지난해 ‘취약 연체채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채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증권

온라인전용 ELS 조기상환

KB증권은 ‘온라인전용 ELS 1호(KBable ELS 제708호)’가 최초 조기상환평가일인 11일 세전 연수익률 15%, 세전 실현수익률 3.75%로 조기상환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전용 ELS’는 주식만 투자하는 고객 비중이 높은 디지털고객에게 자산관리 상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으로 최소 가입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추고 손실을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조기상환이 확정된 ‘온라인전용 ELS 1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조기상환 90% 원금지급 부스터형 상품이다. /김문호 기자



# OLED 진공이송장비 제작... 매출 86%·순익 689%↑ 깜짝실적

## 코스닥 상장 기업탐방 에스엔텍

“100m가 넘는 장비가 A동과 B동에 나눠 제작 중입니다.”

지난 11일 찾은 경기도 화성시 에스엔텍 본사. 에스엔텍 프로젝트 관리팀 관계자는 창문 너머로 작업동 내부를 보여줬다. 방진복과 라텍스장갑, 안전모에 안전화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은 직원들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진공 물류이송 시스템 장비를 제작하고 있었다. 파랑, 하양, 빨강 세가지 색의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장비 제작에 한창이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고객사에서 제작 과정을 감수하는 사람이고, 하얀 옷은 에스엔텍 직원, 파란 옷은 협력사 직원이라고 했다.

에스엔텍 이상철 과장은 “지문이나 먼지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진복 등 장

2015년 코스닥시장 상장

8세대급 대형물류 양산 실적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기록

장비사업 위주 한계극복 노력

비를 철저히 갖춰 입고 작업한다”고 설명했다.

### ◆OLED 라인 물류 이송 시스템

OLED 라인 진공 물류이송 시스템은 OLED 증착과 공정 과정 사이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분, 파티클 등의 환경에 의한 오염을 막는 기술이다. 현재 에스엔텍에는 진공, CDA(Clean Dry Air), N2(질소) 세가지 환경에서 OLED의 물류 이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있다.

거대한 기계 때문에 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못하고 A동과 B동, 두 동에 걸쳐 제작한다. 제작, 도킹, 설치 등 전 과정에서 순서대로 제품 검수를 한다. 이 장비를 제작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다. 에스엔텍은



에스엔텍의 OLED 장비.

/에스엔텍 홈페이지

대형 OLED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8세대급 대형물류 양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형 물류 장비를 제조하는 라인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너편 건물에서는 OLED 라인 CDA 물류 이송 시스템 장비를 제작중이었다.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준공한 S동 신공장과 달리 한 공간에서 전체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창 너머로 끝을 보기 힘든 안쪽 공간까지 거대한 장비가 한 줄로 배치돼 있었다.

에스엔텍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설비용량 장비 제작 기업이다. 설립 초반에는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R&D(연구·개발) 장비를 제작해 공급했다.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여러 기업들에 관련 장비를 납품하게 되고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장비 시장에 진입해,

2015년 코스닥시장에 진출했다.

에스엔텍의 매출은 주로 OLED 라인 물류 이송 시스템 장비에서 발생한다. 2018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OLED 라인 물류 이송 시스템 장비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62.5%로 절반을 넘는다.

###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개발 주력

에스엔텍이 2017년부터 시작한 2차 전지 제조공정 배터리 패키징 자동화 장비 산업은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2017년 매출의 12.7%를 차지했던 2차 전지는 2018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17.1%까지 늘었다.

이대우 에스엔텍 재무관리본부 이사는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2차 전지 비중이 30~4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스엔텍은 이달 초, 작년 연간 매출액이 1127억 4800만원에 달한다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

했다.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157% 증가한 49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6억8500만원) 대비 689% 증가한 54억4000만원을 나타냈다.

에스엔텍은 그동안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이대우 이사는 “2017년 606억1900만원으로 실적이 줄었고 중간중간 역성장한 해도 있지만 전고점을 밀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장비 사업 위주로 꾸리던 회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에스엔텍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개발 중이다.

휴대폰 터치스크린의 전자파 차폐 기술인 전자방해잡음(EMI) 실드(shield)와 반도체 공정진단 시스템인 웨이퍼 센서도 양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대우 이사는 “기업과 대학 등 R&D 관련 장비를 개발하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스엔텍은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엔텍의 자회사인 이노페이스는 태양전지 제조 소모품도 개발했다. 지난 10년 동안 1%포인트밖에 개선되지 않았던 태양광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텐실 방식은 전극선 제조 시 기존 스크린 방식보다 선 폭을 줄이고 균일도를 높여준다고 한다.

에스엔텍 관계자는 “이런 스텐실 방식의 전극선 제조 소모품은 작년 말 시험 생산을 완료하고 빠르면 올해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화성(경기)=배한남 기자 ericabae1683@metrosoul.co.kr



## 임형준 금융결제원장 내정설에 노조 반발

(한국은행 부총재보)

### 3개 노동조합, 반대 성명 발표

낙하산 논란 끊이지 않는 자리

한은 인사국장 시절 잦은 충돌

차기 금융결제원장으로 임형준 한국은행 부총재보(작은 사진)가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개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대대로 한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해왔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조가 유독 임 부총재보의 내정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신입 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후보 중 한 명으로 임형준 한은 부총재보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 부총재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거쳐 인사경영국장과 인사담당 부총재보 등을 역임한 이주열 총재의 최측근이다. 임 부총재보는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흥모 현 금융결제원장 임기는 오는 4월 초가 지다.

임 부총재의 금융결제원 내정설에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결제원 노조, 한은노조가 각각 임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금융결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금융결제원장을 뽑는 공고를 올려왔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부적절한 인사를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절대 용

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은 노조도 “전문성을 무시한 이러한 결정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지키려고 애써 온 독립성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사실 금융결제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금융결제원의 역대 원장 13명 모두가 한국은행 출신이었다. 이흥모 현 금융결제원장은 1981년 한국은행을 입행해 금융시장국장, 해외조사실장, 발원국장 등을 거쳐 2014년 부총재보를 역임한 후 금융결제원장이 됐다. 서열상으로도

임 부총재보는 다음 금융결제원장 차례다.

그럼에도 노조가 임 부총재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한 내부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총재보는 2014년 4월부터 2년간 인사경영국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임 부총재보는 한은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시간 늦추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임 부총재보가 내정됐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노조에서 반발이 심한 이유는 한은 내부에서 임 부총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표출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986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설립돼 지급결제 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 간의 자금결제와 지급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가 금융 공동 전산망을 운영하는 만큼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이 회원사로 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집단의 재취업 창구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융결제원은 지구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희주 기자 h89@

### <장애인 전용보험 주요내용>

종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보장범위	암, 사망을 주로 보장	연금 보험	자동차보험(대인, 대물, 자손 등)	재해사망을 주로 보장
특징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	일반상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	추가 가능한 보장 : 건강회복지원금 등	추가 가능한 보장 : 질병사망, 암진단 등
판매처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KDB생명	DB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자료=금융감독원

## 세제혜택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서 나온다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당 청구 목록 등이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가 제작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심사에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장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

거나 금융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이 담긴 예정이다. 암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지급 연금액이 더 크다.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과 사례도 소개된다. 피해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각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올해 1월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2020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희주 기자

## 부울경 핀테크 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금융위원회가 부산·울산·경남지역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임시 해제·유예) 설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경남지역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핀테크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핀테크 기업이나 예비창업자, 금융회사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전화 신청 하면 되고,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서유리 기자



올해 스마트공장에 작년 예산 2.6배 증액

# 3428억 투입, 4000곳 구축

중기부 스마트공장확산 사업 신규 구축, 0.5억→1억 확대 시범공장 25개 보급, 3억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극대화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 342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4000곳 구축을 돕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1330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2800개, 대기업 등 민간이 1200개를 각각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각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구축 기업이 '네벨3 수준' 이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면 최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선정절차도 간소화했다. 5주가 걸리던 선정 기간은 2주로 줄이고, 같은 해에 참여할 기회는 2회까지 허용해 1년 안에 기초 수준부터 고도화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2019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금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구축	1억원
	고도화	(기초)1억원(중간이상 1.5억원)
	대중소 상생형	0.5억원 이내
	시범공장	3억원
	업종별 특화	1억원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3억원
스마트 마이스터		마이스터 인건비
스마트화역량 강화		컨설팅 비용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진단비용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공고 내용 확인 필요.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시범공장은 25개 보급한다. 모델하우스처럼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편리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중 5개 기업은 로봇을 함께 구축해 최대 6억원까지도 수혜가 가능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 특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해당 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표기관은 협력사의 구축비용

을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많다면 스마트공장 수요 기업은 공동 구매 방식으로 도입 비용을 줄이고, 공급 기업은 비슷한 솔루션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올해 로봇을 활용한 제조혁신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렸다.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의 기업 15곳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5곳에도 로봇을 지원한다.

공장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노하우도 지원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도 도입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도 경제주체로...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급물살

국회에 관련 법안 3개 접수 중소기업정책의 일부 아닌 독자적인 기본법 마련 추진

종사자수만 64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법 제정 추진에 시동을 걸었고, 정부도 연구용역을 거쳐 자체 입법을 준비하고 나서면서다.

업계 안팎에선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전체의 85%인 약 300만개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이들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돕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통과를 약속하며 불을 붙였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과 이연주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은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등 18인이 발의한 관련법까지 포함해 총 3개의 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관련법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

국회 접수 소상공인기본법안 현황

①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의원 등 18인) -2018년 7월9일 제안  
-주요 내용 : 중기부 장관이 5년마다 소상공인 기본 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소상공인진흥위원회 설치, 국가 및 지자체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실시,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등

② 소상공인기본법안(홍철호의원 등 10인) -2019년 1월29일 제안  
-주요 내용 : 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

③ 소상공인기본법안(이연주의원 등 10인) -2019년 1월30일 제안  
-주요 내용 :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수행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세 감면 등

다"고 강조했다.

이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수행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연주 의원 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도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중 부회장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을 규정한 조문은 제21조의제1항제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미했고, 소상공인정책 역

시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로 끼워 넣다보니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국회와 별도로 소상공인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제부총리로서 처음으로 서울 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질적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경제구조의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그치지 않고 공정 경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하나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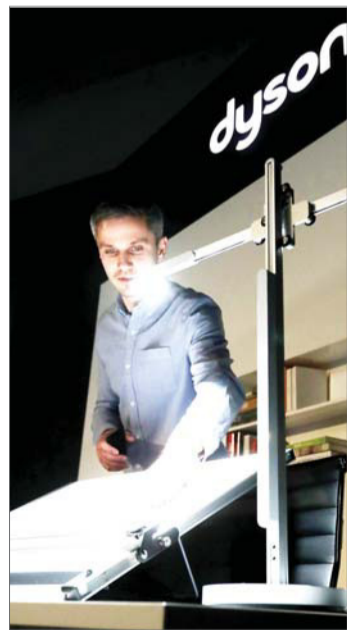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의 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적합한 소상공인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 자연광 추적 조명... "60년 사용 가능"

다이슨 조명 신제품 공개

시간대 맞는 '최적의 빛' 제공 2년 동안 개발... 건강에 초점



영국 유명 가전업체 다이슨의 사이먼 크로스 연구디자인개발부 선임 디자이너가 12일 서울 강남구 서울옥션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내활동 시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빛을 제공하는 가정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데스크 조명'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웰빙을 고려한 조명으로 국내 조명 시장에 발을 들였다. 다이슨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 서울옥션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이슨라이트사이클 데스크 조명을 선보였다.

다이슨이 국내에서 조명 제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한 신제품은 다이슨의 2세대 조명 제품으로 한국에 앞서 프랑스, 일본, 중국에 출시됐다. 한국 소비자가 웰빙에 민감한 점을 파악해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라이트사이클 데스크 조명은 9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2년여에 걸친 개발 기간 동안 892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들은 자연광과 달리 인공조명이 주는 해로움을 인식해 건강한 습관을 위한 조명을 개발했다.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광 추적을 통해 실내에서 최적의 빛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이먼

발했다"고 말했다. 사용지역의 일광에 맞게 지속적으로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시간대에 맞는 최적의 빛을 제공한다.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하루 중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인공위성이 전송하는 100만 개 이상의 자연광 상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됐다. 조명에 내장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 자연광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한 후 옵티컬 드라이버에 전달, 다양한 빛의 색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따뜻한 색온도의 LED 3개와 차가운 색온도의 LED 3개를 통해 2700~6500 켈빈(K)의 자연광 색온도를 재현한다.

눈 보호에도 신경 썼다. 약한 조명, 깜빡임, 눈부심은 눈의 피로도를 상승시키는데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데스크 조명은 100룩스 이상의 밝기, 눈부심 방지, 낮은 깜빡임 기능이 결합돼 고품질의 빛을 균일하게 제공한다.

다이슨라이트사이클 데스크 조명은 데스크형과 플로어스탠드형으로 제공되며 화이트·실버, 블랙 등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데스크형이 66만원 플로어스탠드형이 96만원이다. /구서원 기자 yun2514@

크로스 다이슨 엔지니어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을 위해 적절한 색과 밝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시간, 날짜, 장소 등 세 요건에 기초한 고유 알고리즘을 개

## '창립 20주년' 휴넷 ... 2000명에 무료 교육 제공

취약계층에 온라인 수강권

휴넷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2000명에게 공인중개사 교육 수강권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부한 수강권은 한기장복지재단을 통해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휴넷은 이번 기부를 통해 인기 국가자격증인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 준비과정 전체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전달식에 참석한 권대욱 휴넷 회장은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고 원천이며 그 기회는 누구에



휴넷은 저소득층 2000명에게 공인중개사 교육 수강권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권대욱 회장(오른쪽)이 서울 사랑의열매 황우영 사무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휴넷

게나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휴넷의 작은 정성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의 도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휴넷은 2016년부터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교육 수강권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 여행가기 좋은 ‘봄’이 왔나봄... LCC 할인하나 ‘봄’!

벚꽃 등 꽃놀이 나들이객 위해  
3~4월 할인 프로모션 평평  
1+1 항공권 이벤트도 살펴봐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봄철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12월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벚꽃 나들이객을 위해 13일까지 총 36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3~4월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국내 노선은 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등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1만3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국제선은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오사카(간사이) 4만5900원, 후쿠오카 6만900원 등 일본 12개 노선을 포함해 블라디보스토크 8만1900원, 타이베이(타오위안) 7만6900원, 방콕 10만5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가 이벤트엔 지난 1월 신규 취항한 베트남 나트람 노선과 오는 15일 신규 취항하는 베트남 푸꾸옥 노선이 포함돼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10만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도 3~5월 봄 여행을 준비

할수있는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ttw 특가 이벤트는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월 24일까지 일주일 간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김포·대구·광주·무안에서 제주로 왕복하는 국내선과 인천과 대구, 부산, 김포, 제주, 무안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탑승기간은 국내선의 경우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제선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내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1만 6300원부터다. 국제선의 경우 기타쿠슈·사가·구마모토·오사카 4만 300원부터, 도쿄 4만 5300원, 마카오 6만 2500원, 클락 7만 7500원, 블라디보스토크 8만 6660원, 호찌민 8만 8700원, 괌 11만 6080원부터 등이다.

에어부산은 한 명 가격으로 두 명이 이용할 수 있는 1+1 항공권 이벤트를 실

시한다. 에어부산은 13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노선, 18일부터 24일까지는 중국 및 동남아, 그리고 대양주 노선의 1+1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항공권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탑승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이번 1+1 항공권의 해당 노선은 일본 지역은 후쿠오카·오사카·삿포로·도쿄·나고야 노선이며 중국 지역은 쑤아·징다오·홍콩·마카오, 동남아 지역은 타이베이·가오슝·세부·시엠립·다낭·괌·비엔티안·하노이, 마지막으로 대양주는 괌 노선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17일까지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JJ 멤버스위크'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

다. 단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국내선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 편도항공권 기준 최저가는 김포~제주, 청주~제주노선은 각 2만2200원, 광주~제주 2만200원 등이다.

외국항공사들도 할인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베트남항공이 2월 하노이·호찌민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인천·부산에서 출발하는 하노이·호찌민 노선이 대상이며 예약과 발권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베트남항공 이코노미클래스 항공권을 하노이 23만1500원부터, 호찌민 28만8200원부터 살 수 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KT, 서울랜드에 '5G 테마파크' 만든다 LG전자, GS리테일과 손잡고 '장보기' 혁신

5G네트워크·VR 놀이기구 등 적용

KT는 1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서울랜드와 손잡고 '세계최초 5G 테마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KT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천시 서울랜드에 ▲5G 네트워크 ▲지능형 CCTV 기가아이즈 ▲KT 에어맵 코리아 ▲5G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 ▲가상현실(VR)·혼합현실(MR) 놀이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는 서울랜드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 완료하고, 이용자들이 KT 5G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한 테마파크 이용을 위해 KT의 지능형 CCTV 기가아이즈를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와 대응을 위해서는 KT 에어맵 코리아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왼쪽)과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가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5G 테마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관련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주요 놀이기구의 싱크뷰(무선통신 모듈이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 등 5G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적용해 탑승 이전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VR·MR 놀이기구도 나온다. /김나인 기자 slkni@

홈IoT 기반 쇼핑 서비스 론칭  
매장 구입 이력 분석·제품 추천 등

LG전자가 GS리테일과 손잡고 홈IoT 기반 쇼핑 서비스를 론칭한다.

LG전자는 11일 GS리테일과 IoT 기반 장보기 서비스와 오프라인 매장 혁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양사가 홈IoT를 기반으로한 장보기 서비스와 가전 사용 패턴에 따른 고객 맞춤형 제품 추천 서비스, 5G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매장 준비 등 내용을 담았다.

홈 IoT 기반 장보기는 LG전자 스마트 가전에서 음성명령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는 서비스다. 또 LG전자는 스마트 가전을 통해 GS리테일 매장에서 구입한 이력을 분석하고 맞춤 제품을 추천해준다.



LG전자와 GS리테일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구매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맺었다. LG전자 황정환 융복합사업개발부문장(왼쪽), GS리테일 김용원 디지털사업본부장 /LG전자

아울러 양사는 LG전자의 최신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첨단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융복합사업개발부문장 황정환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첨단 기

술과 GS리테일이 축적해온 유통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쇼핑 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 네이버랩스 새 대표에 석상욱 부문장 내정

네이버랩스는 석상욱(사진) 자율주행 머신부문장이 네이버랩스의 새 대표로 내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석 상임 대표는 3월 1일부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2013년 네이버의 사내 기술연구 조직으로 출발해 2017년 1월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네이버랩스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최첨단 미래 기술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R&D)법인이다.

석상욱 신임 대표는 네이버랩스 설립 이래 로보틱스 부문 리더를 맡아 5G 브레인리스 로봇 엠비텍스,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 등 세계적으로도 놀랄만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여줬다.

네이버는 "석 대표가 네이버랩스의 그동안의 연구개발 비전과 전략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 내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석상욱 신임 대표는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학사) 및 동 대학원을 졸업(석사)하고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글로벌 자동화/계측 솔루션 기업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와 삼성전자를 거쳐 2015년 9월 네이버에 합류했으며, 2017년 네이버랩스 설립 이후 로보틱스 부문 리더를 맡아 연구개발을 주도해 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동국제강, 15년만에 CI 컬러체계 개편... 제작물 활용도 제고

동국제강이 15년 만에 CI(Corporate Identity) 컬러체계를 개편했다.

12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현재 CI는 동국제강이 2004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채택도가 높은 블루와 레드를 메인 컬러로 해 제작했다. 그러나 CI를 적용하는 제작물 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C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5년만에 개편을 실시하게 됐다.

변경된 CI는 기존 컬러 계열을 유지하는 대신 제작물에 적용시 조화롭고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채도를 낮췄다. 두 가지 컬러는 동국제강을 상징하는 색으로 '동국블루(Dongkuk Blue)', '동국레드(Dongkuk Red)'로 명명했다.

동국블루는 동국제강의 투명성, 자신감과 품격을, 동국레드는 자부심, 열정,



DONGKUK BLUE DONGKUK RED

의지, 노사간 화합과 결속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색의 조합은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영속적으로 발전하는 동국제강의 기업상을 상징한다.

동국제강은 이번 새 CI를 활용해 향후 그룹사 통합 문서 양식과 기업 소개 브로슈어, 제품 카탈로그, 홈페이지, 명함, 사무용품, 기념품, 공장 사인물 등 다양한 제작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 2032년 올림픽 유치, '20년 집권론'과 묘한 앙상블?

(이해찬 대표)

北 올림픽 유치도시 '평양'으로 결정  
체육회, 15일 IOC때 정부보증서 제출

서울특별시와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 결정된 가운데, 2032년 올림픽이 남북 공동으로 성사된다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20년 집권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정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동·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대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서울을 결정했다. 서울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

픽을 개최한 이력이 있다. 북한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평양이 결정됐다. 서울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국내유치 평가'를

받는다. 이후 체육회는 '정부 보증서'를 오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회의 때 제출할 예정이다.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나선 도시는 서울을 비롯해 인도 뭄바이와 호주 브리즈번 등이다. 이들 도시 중 서울은 올림픽을 유치할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때 "북측 유치도시는 사실상 수도 평양이 정해졌다. 서울올림픽이 곧 한반도 올림픽"이라고 운을 댄 후 "서울은 역대 올림픽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울-평양 동시 개최식을 열 것이다. 또 서울은 1988년 하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경험과 유산이 남아 있다"며 유치 경쟁력을 뽐냈다.

박 시장이 강조한 서울의 올림픽 유치 경쟁력 때문일까. 여권 안팎에서는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관련 이 대표가 강조한 20년 집권론을 연결했다.

의명을 요구한 민주당 광주시당대원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32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2년 올림픽 유치 도시로 서울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2032년까지 약 20년이 걸린다. 이 대표는 줄곧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다.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20년 집권론은 헛말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의명을 요구한 민주당 서울시당 대의원 역시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성사된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매우 기쁜 일 아닌가"라면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시기와 이 대표가 언급한 20년 집권론은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구석이 있다"고 했다.

/우승준·배한남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산업부, 투자 프로젝트 '밀착지원' 나선다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프로젝트별 과장급 전담관 지정  
이달 중 '투자헬프데스크' 설치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애로 해소, 최종 성사까지 밀착 지원하는 지원단을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일괄 지원해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상의 및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7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더불어 전력 공급, 산업 입지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프로젝트별로 과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적기에 이행되고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며 전담관 또한 실장급 또는 국장급으로 지정한다.

신규 프로젝트 발굴뿐 아니라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140여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 바 있다.

이밖에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제도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 초기 수요 창출, 시범·실증 사업 등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이번달 내 8개 상의와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헬프데스크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로 이용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국기에 경례하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영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 농식품부, 농기계 수출액 10억달러 돌파

해외에서 국산 농기계인 트랙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농기계 수출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90년 1400만 달러로 농기계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18년도에 10억4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내수시장 의존전략을 탈피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 업체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트랙터가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만능 역할을 했다.

트랙터는 부착작업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농기계 수출의 70%를 차지해 수출 전략적 품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56%를 수출해 트랙터의 본 고장에서 우리나라 트랙터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및 자재, 작물생육에 필요한 보온자재 등 시설기자재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설기자재의 수출 증가는 국내 업체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 활발히 진출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농기계 업계 관계자는 "농기계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미시장 위주의 수출시장에서 동남아 시장 등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위리어 플랫폼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근 육군이 추진하는 위리어 플랫폼 사업에 포함되는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88식 소총에 뚫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취재에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일 한 경제지는 '신형 방탄헬멧 北소총에 뚫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군이 북한의 소총(88식 보총·구소련의 AK-74)이 발사한 탄을 막지 못하는 방탄헬멧을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소총탄을 막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탄헬멧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보도다. 우선 현존하는 방탄헬멧 중 러시아군 일부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티타늄 헬멧을 제외하고 소총탄의 직격을 막아내는 헬멧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한 기업이 무게를 줄이면서도 소총탄을 막는 방탄헬멧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방탄력만 볼 것이 아니라 전장상황 등 작전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우리 군이 채택하려고 하는 하이컷(귀부분이 개방된 형태) 헬멧과 귀부분까지 덮는 ACH형 헬멧은 각기 다른 전장환경을 염두해 두고 사용되는 것"이라며 "특



문명철

국방기사 칼럼

수부대의 경우 경량화와 통신장비 및 작전에 필요한 장비의 부착을 위해 방호면적을 희생한 형태를 취하고, 일반 보병 헬멧은 방호면적을 높이기 위해 귀아래를 덮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탄헬멧이 소총탄의 직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파편과 권총탄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러한 방호요구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작전상황에 맞게 헬멧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방탄헬멧은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의 등급 IIIA 이상의 방호 성능이 적용됐다는 내용도 좀 더 짚어봐야 할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NIJ IIIA는 구경 9mm 권총탄이 초속 436m로 날아올 때 방호 장구가 파손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357 시그탄 및 44매그넘탄 방호 기준이다. (357 시그탄 430m/s, 44매그넘탄 408m/s).

이 등급도 엄밀히 말하면 방탄헬멧이 아닌 방탄복과 방탄플레이트(판)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실질적으로 방탄헬멧의 방탄성능 테스트는 NIJ IIIA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파편방호 규격인 V50을 적용하거나, NIJ 등급을 혼용해 비공식적으로 자체적인 LEVEL 3A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V50은 22구경 17그레인 탄자를 특정 속도로 방탄소재에 충돌시켜 50% 확률로 관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우리 군의 방탄헬멧은 무게를 줄이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후면변형(헬멧 찌그러짐)이 44mm에 달하지만, 외국의 경우 방탄헬멧 착용자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무게보다 후면변형을 낮추는 쪽을 택하고 있다.

육군이 장병의 생존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위리어 플랫폼 사업에 대해, 언론이 진지한 연구와 성찰 없이 보도를 하게된다면 또 다시 불필요한 방산비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때문에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보도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captinm@

## 산업부, 中·중견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정부가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에 나선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신규 설립 및 임원 수입 등을 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날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19년도 국제표준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에서 126명을 선정해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또한, ISO/IEC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30여개의 국제표준화 회의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先취업 後학습’ 활성화... 대학평생교육에 234억 지원



초·중학생들이 지난 11일 한성대 학술정보관에서 마련한 ‘피지컬코딩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성대

## 한성대 초·중학생에 코딩 교육

한성대학교는 학술정보관에서 11일~14일까지 4일간 지역사회 초·중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피지컬코딩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코딩 기술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 체험으로 구성된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해 코딩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권혁제 교수(사회과학부 금융·데이터 분석트랙)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딩 수업이 진행되고, 한성대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강순애 학술정보관장은 “한성대 학술정보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도서관 개방,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공공 기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회화과 81학번 동문인 신영진 한남대 회화과 교수(오른쪽)가 ‘2018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협력 부분 상을 받고 있다. /세종대

## 세종대 신영진 동문 ‘공군을 빛낸 인물’ 협력상

세종대학교는 회화과 81학번 동문인 신영진 한남대 회화과 교수가 지난달 30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2018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협력 부분 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교수는 공군 장병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 노백린 장군과 권기욱 애국지사의 초상화를 선보였다.

노백린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현재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면서 한민비행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권기욱 애국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항일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로 불린다. 그는 독립 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과 발전에 기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 애국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이왕군 공군참모총장은 “역사기록화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공군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성인학습자용 단과대·학과 설치 일반대학 20교 내외 등 26곳 선정 2020학년도 대입부터 학습자 모집

학령인구 감소와 성인들의 계속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대학들의 평생교육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대학에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위과정과 전용 단과대·학부·학과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고교 졸업후 우선 취업한 뒤 재직 중 대학에 입학하는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자기 개발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 ◆전문대 포함 26개 대학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대학 20교 내외, 전문대학 6교 내외 등 총 2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올해 23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 〈일반대학 운영모델 예시〉

/자료=교육부

단과대학형	-복수의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로 별도의 단과대학 구성 -단과대학 내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학부형	-복수의 성인학습자 대상 전공으로 별도 학부 구성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협업체계구축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학과형	-기존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 개설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 구축
컨소시엄형	-복수의 대학이 연계해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공동 개발 및 운영 -공동(복수) 학위 수여 가능 -학점 교류 및 공동 성인학습자 지원 인프라 구축(대학별 전담 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평생교육 거점을 만들기 위해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강원·대경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 3~7개교를, 전문대도 권역별 1~2교를 사업수행 대학으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에는 기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평생직업교육 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이나 2017~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학이나 기관평가 불인증·유예 대학 등은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기존 1년 단위의 단년도 사업에서 올해부터는 4년(2+2년)의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되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가감되거나, 2년차 중간평가 결과 사업 성과가 매우 미진한 대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고, 평생교육 운영 모형과 운영 규모(학생 정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을 위한 ▲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공동참여형(컨소시엄) 등의 평생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성인학습자를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운영 형태별 1년 지원예산은 단과대학형은 12억원 이내, 학부형은 6억원 이내, 학과형은 3억원 이내, 컨소시엄은 12억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대의 경우 학부(계열)형 10억원 이내, 학과형 4억원 이내, 컨소시엄 12억원 이내다.

### ◆성인학습자 정원 대학 자율, 교육과정은 지역산업과 연계해야

학생 정원은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구성할 수 있고, 특히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성인학습 수요와 지역산업체 인력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고, 수업 방식은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

연한 상한 폐지, 시간제 등록제와 재직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따른 성인학습자 학위과정 학습자 모집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실시되고,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진행하게 된다.

일반대학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을 이수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경우엔 산업체 2년 이상 재직자나,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 대학 선정 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되고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학과 지원금액이 정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학령기 학생 수 감소와 상반해 나타나는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학습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인사담당자 27% “고졸채용 전망 흐림”

## 잡코리아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 공기업·공공기관 68% “고졸 채용”

올해 국내 기업의 고졸 채용 경기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318명에게 ‘2019년 고졸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졸 채용 경기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답변이 60.4%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작년보다 나빠질 것’(26.7%)이란 전망이 ‘작년보다 좋아질 것’(12.9%)이란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고졸 채용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졸, 대학원졸 등 채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50.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력 감원을 계획 중이어서’(48.2%), ‘올해 전체 채용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36.5%) 등의 이유가 나왔다.

실제로 올해 고졸 직원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5%

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68.6%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58.7%)도 절반 이상이 고졸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반면, ‘고졸 채용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4곳 중 1곳(25.8%)이었고, ‘아직 일정이 미정’인 곳은 27.7%였다. 고졸 채용이 확정됐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 시기를 묻는 결과, ‘상반기’(37.2%)와 ‘상·하반기 둘 다 진행’(25.0%)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실제로 올해 고졸 직원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5%

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68.6%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58.7%)도 절반 이상이 고졸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반면, ‘고졸 채용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4곳 중 1곳(25.8%)이었고, ‘아직 일정이 미정’인 곳은 27.7%였다. 고졸 채용이 확정됐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 시기를 묻는 결과, ‘상반기’(37.2%)와 ‘상·하반기 둘 다 진행’(25.0%)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실제로 올해 고졸 직원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5%

## 사람인 ‘나한테 적합한 직무는?’ 무료 적성검사서비스 론칭

사람인은 구직자의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적성검사 서비스를 론칭해 무료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람인 적성검사 서비스는 본인 적성 파악은 물론,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와 공고를 추천해 구직활동 편의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검사 후 바로 언어, 수리, 추리, 공간의 4가지 분야별 적성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개인의 감정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또 응시자의 적성에 맞는 추천 직무와 해당 직무 채용 공고까지 원스톱으로 보여줘 구직활동을 돕는다. 사람인 개인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업계 최초로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인의 임태경 팀장은 “적성검사는 이미 우수 기업에서 지원자 직무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채용 툴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사람인 적성검사는 평가에 필요한 문항은 최소화하고, 쉽고 변별력 높은 문항 유형을 개발해 검사의 편의성과 변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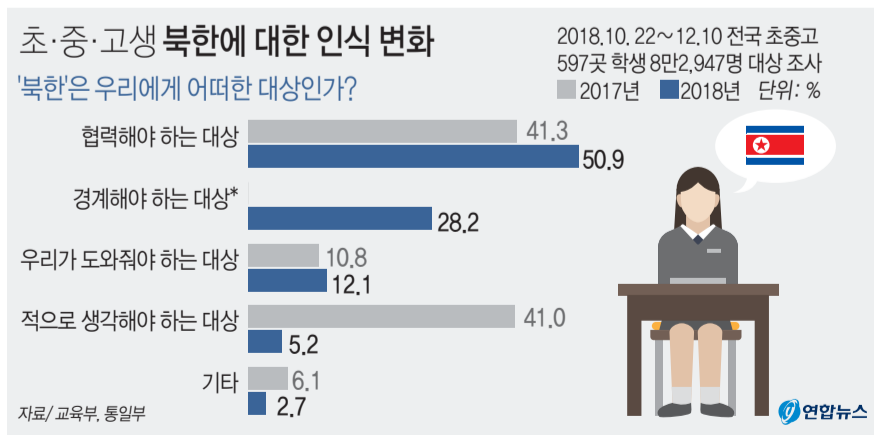
이번 서비스 개발에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인적성 검사를 개발한 심리평가 권위자 이종구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했다.

사람인은 적성검사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내달 12일까지 적성검사에 응시하면 자동 응모되는 오픈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맥북 에어(1명) ▲에어팟(4명) ▲스타벅스 기프티콘(50명) ▲카카오 이모티콘(945명)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통일교육 실태조사 ‘북한 부정적 이미지’ 크게 줄어

초·중·고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감소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무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2일~12월 10일까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97개교 8만 7113명의 학생과 교사 대상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전쟁·군사’ 또는 ‘독재·인물’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56.4%로 전년과 비교해 17.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민족통일’이란 응답 비율은 24.9%로 전년 대비 16.3%포인트 증가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답변이 늘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63.0%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13.7%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한용수 기자



# 그린벨트 대거 풀린다~ 자 이제! 내 땅도 천지가개벽 좀 해보자!

2020 광역도시계획 → 202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면적 85.5%가 그린벨트인 의왕시, 백운호수 인접 최대수혜 단연 화제



## 백운밸리 신도시 도로 접 토지매각!



현장 팩트가 답이다! 지금 당장 직접 확인하시면 답이 보이는 돈되는 땅!  
신도시 1차 설계시, 도시용지 범위 포함 임야로 추가 그린벨트 해제시 지가 상승

- 신도시 1차 설계시, '단독주택 용지'에 포함되었던 지역임
- 신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8~10m 도로를 접하고 있음
- 경사도가 없는 평지의 토지로 산림 훼손이 심한 낮은 임야임
- 도로, 상하수, 통신 등 기반시설이 매각지 앞까지 들어와 있음
-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신도시 개발 호재
- 청계IC~ 강남 15분(과천~봉담 고속화도로)
-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청계역(2019년 착공예정)
- 백운로·의일로 4~6차선 확정~제2경인고속(북청계연결)
- 백운~의왕 오전동 4차선 신설도로(2020년 개통예정)
- 2020년중 롯데복합쇼핑몰(10만m<sup>2</sup>) 입점 확정

문의 **031)462-9090**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 하나금융 노예림 등 올 시즌 골프선수단 출격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선수 노예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선수 허윤경,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선수 박상현을 새로 영입, 7명의 골프 선수단을 구성해 2019년 새 시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이민지(LPGA), 엘리슨 리(LP GA), 박현경(KLPGA), 이승민(KPGA) 등 기존 후원 선수와 함께 활동하게 된다.

노예림은 지난해 미국 AJGA(미국아마추어골프협회) 전국 규모 대회에 9번 출전하여 메이저급 3개 대회를 포함해 총



노예림 LPGA 선수.

4개 대회에서 우승한 미국 여자 아마추어에서는 독보적인 신예다. /김문호 기자 kmh@



### SK증권, 티인베스트먼트와 전략적 제휴 맞손

SK증권은 12일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에서 벤처캐피탈(VC)사인 티인베스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육성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자금유치 등 기업금융관련 업무에 상호 협력한다. SK증권 김신 사장(왼쪽)이 티인베스트먼트 김태훈 대표와 포즈를 취했다.

SK증권은 12일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에서 벤처캐피탈(VC)사인

티인베스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육성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자금유치 등 기업금융관련 업무에 상호 협력한다. SK증권 김신 사장(왼쪽)이 티인베스트먼트 김태훈 대표와 포즈를 취했다. /SK증권



### BMW 공식 딜러 도이치모터스, 박항서 감독 후원

BMW 공식 딜러 도이치모터스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성수통합센터에서 'BMW 공식 딜러 도이치모터스 박항서 감독 후원식'을 통해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게 BMW X4 차량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왼쪽)과 박항서 감독이 차량 전달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MW 공식 딜러 도이치모터스가 박항서 감독 후원에 나선다. 도이치

모터스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성수통합센터에서 'BMW 공식 딜러 도이치모터스 박항서 감독 후원식'을 통해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게 BMW X4 차량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왼쪽)과 박항서 감독이 차량 전달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 애경산업 트리오, 獨 iF 디자인어워드 '위너'

애경산업은 주방세제 트리오의 '발효 설거지'가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2019' 패키징 부문 '위너(WINNER)'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트리오 발효 설거지는 맑은솔 설거지, 발효초 설거지, 곡물 설거지 등 총 3종으로 각각 청주, 발효초, 누룩발효 등 전통적 방식인 발효의 지혜를 담아 식기 오염정화 및 잡내, 악취, 기름기 제거 등의 기능을 살린 주방세제다.

애경산업 측은 발효를 상징하는 향아리·술병에서 모티브를 얻은 용기 모양,



애경산업 트리오의 '발효 설거지'. /애경산업

함유성분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가 우수한 평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귀뚜라미, 러 '아쿠아 섬 모스크'서 기술력 뽐내

귀뚜라미는 12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크루스코 엑스포'에서 열리는 '아쿠아 섬 모스크 2019'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년 연속 참가하고 있는 귀뚜라미는 가정용 가스보일러부터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펠릿 보일러 등 주력 제품 12종을 선보이고 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12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크루스코 엑스포'에서 열리는 '아쿠아 섬 모스크 2019'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년 연속 참가하고 있는 귀뚜라미는 가정용 가스보일러부터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펠릿 보일러 등 주력 제품 12종을 선보이고 있다. /귀뚜라미

## 임플란트, 오래 사용하려면?



신태원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나요?"라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플란트는 저작능력이나 심미적인 효과에 있어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한 게 사실이지만 100% 수명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평소 생활습관이나 구강상태, 식습관, 외부적인 요인 등에 따라 임플란트의 수명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수명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 식립 후 10년 후 하악 임플란트의 95%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상악 임플란트는 90%가 정상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5~10%

정도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임플란트는 머리 부분(크라운, 치아 모양의 덮개)과 인공치근(티타늄, 잇몸뼈 속에 들어가는 치아뿌리)의 상·하부 구조물로 구성 되어있는데 학계에선 하부구조물은 처음 시술 후 1년까지 1mm 가 빠 속으로 흡수되고 그 뒤에는 0.1mm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부구조는 일반적으로 7~8년에 한 번씩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염증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임플란트 식립 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염증'인데, 임플란트 치아는 수직구조로 되어있는 데다 자연치아 주변부와 같이 촘촘하지 않아 한 번 염증이 발생하면 뼈조직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보고되고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 중 30% 이상이 '임플란트 주위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염증 정도가

심한 경우 잇몸뼈까지 녹아내려 재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평소 칫솔질이나 스케일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처럼 임플란트 수명은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수술집도의 실력과 환자의 잇몸상태에 달려있는 만큼 처음부터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료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에는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검진을 받고 치아조직이 제대로 아물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식되었는지, 염증발생 유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감염 및 염증을 유발하는 흡연이나 음주는 약 1개월 이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잠을 잘 때 이를 갈거나 약물은 습관이 있다면 자연치아의 수명까지 단축시킬 위험이 있으니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치과전문의·임윤신치과 원장

## 여행가방 당일배송 서비스로 신중년 일자리 창출

### CJ대한통운-한진-인천공항 MOU

CJ대한통운과 한진이 해외 여행객들의 여행가방이나 짐 당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12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시, 계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 스마일시스템과 함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여행객 여행가방 당일 배송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오른쪽부터)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류경표 한진 대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중식 인천시 균형발전정책무부시장, 박상신 계양구 부구청장, 조선현 스마일시스템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중진공, 中 小 企 역량강화사업 신청 접수

기업당 1개 과제 신청 가능  
올 총 54개 기업 선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품 기술개발이 끝났지만 매출 발생 등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보유 기업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

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선발하고, 선발기업에게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성공판정 기술이나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신청 시 해당 기술은 사업화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사업화 기획 단계는 사업화 추진 로드맵 작성, 기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실시하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시장검증 단계 지원은 시제품 제작, 성능테스트, 고객 패널조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다.

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단계는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향상, 기능개선 등에 필요한 개발 보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은 올해 54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인사

◆국방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장 김신속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고경국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권대일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배정원 △전력자원관리실 군공함이전사업단 이현철과장 김미정

◆통일부 ◇과장급 전보(2월18일자) △북북회담본부 회담3과장 이정택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서한교 ◇과장급 전보(2월19일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과장급 전보(2월21일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

소 관리후생과장 고인근  
◆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가격조사과장 최명근  
◆병무청 ◇과장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유병호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오재덕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홍소영

### 부음

▲ 조희엽씨 별세, 김낙근(광주MBC 국장)·성곤(전 한국계업인협회 사무국장)·해자·봉숙·미숙·혜숙(진성여중교사) 씨 모친상, 박병선(선양해운대표이사)·한은(전 여수공고 교감)·강성담·조영성(매산중 교사)·이윤화(신평택발전소 팀장) 씨 장모상 = 12일 오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14일 오전 9시  
▲ 박관례 씨 별세, 김영일 씨 모친상, 성한(KBS

보도본부 과학재난부 팀장) 씨 조모상 = 11일, 광주 신세계장례식장 202호, 발인 13일, 062-352-2006

▲ 오복자씨 별세, 조오환(전 세무공무원)씨 부인상, 조혜순·조기원·조기홍(세무법인 서림 대표)씨 모친상, 김재현(성균관대 사범대학장·컴퓨터교육과 교수)씨 장모상=11일 부산의료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51-607-2990

▲ 이동희씨 별세, 박순영(전 건국대 홍보실장)씨 모친상, 이동간·이성희씨 조모상, 이재욱씨 시모상=11일 서울 건국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02-2030-7909

▲ 엄우수씨 별세, 원순애(도림교회 권사)씨 남편상, 엄성원(머니투데이 차장)·엄봉원(프리랜서)씨 부친상, 양유인(두산중공업 차장)씨 시부상=1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2227-7566



# ‘삼한사미’로 실내에서 즐기는 ‘인도어 용품’ 뜬다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

실내 스포츠 대세... 관련용품 인기  
트레이닝복·헬스용품 등 매출 급증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에 이어 올 겨울에도 실내 스포츠가 대세로 떠올랐다. 한파와 미세먼지의 공세에 지친 이들이 날씨의 제약이 없고, 공간 접근성도 뛰어난 실내로 눈을 돌린 것이다. 관련 제품의 판매도 덩달아 늘어, 매출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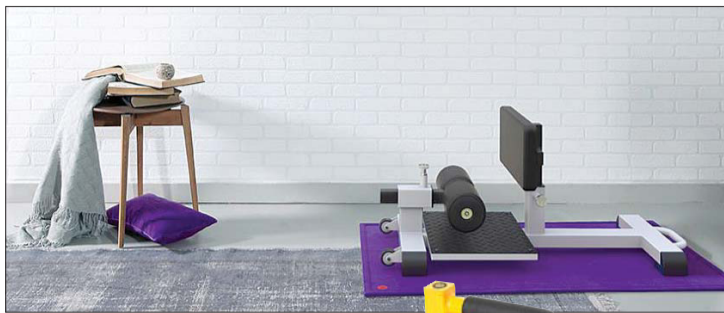
12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어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트레이닝복, 스포츠 용품 등의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의 최근 한 달(1월 11일~2월 10일)간 매출을 살펴보면, 남성 트레이닝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용 세트도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레이닝복은 가볍고 활동성이 뛰어나



나면서도 적당한 두께감을 가진 제품이 인기다. 뉴발란스 ‘UNI 트랙클럽’ 후드티, 팬츠는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어 실용성이 좋은 제품으로 꼽힌다. 다이아핏의 ‘네오소닉 남성 트레이닝’ 재킷, 팬츠는 두께감과 복원력, 활동성을 두루 갖춘 제품이다.

인기있는 실내 스포츠 종목의 운동복



◀다이아핏의 네오소닉 남성 트레이닝 재킷&팬츠.  
▲건강한형제들의 스쿼터머신.  
▶멜킨스포츠의 에너제틱 강철 푸쉬업바.  
/다이아핏·G마켓

이나 이너웨어도 잘 팔린다. G마켓이 같은 기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복의 판매율은 전년 대비 21% 늘었고, 스포츠 브라와 레깅스는 각각 33%, 22% 증가했다.

이러 종류로는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스포츠레깅스’가 탄탄한 기능성에 예쁜 실루엣을 연출해줘 반응이 좋다. 살레와

의 ‘스트레치 레깅스’, 아이더의 ‘여성 스포츠브라’ 등은 몸을 크게 움직여도 활동이 쉽고 편안하다.

다이아핏 관계자는 “최근 인도어 스포츠가 대세로 떠오르며 한겨울임에도 가벼워지면서도 소재가 탄탄한 제품군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뛰어난 기능성으로 움직임에 제약이 없지만 실내 한기 정도

는 충분히 막아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패션 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제품군은 ‘스포츠 용품’이다. 스쿼터 용품 중 하나인 거트(라켓 줄) 판매는 2배(100%) 급증했고, 요가 볼 및 볼, 필라테스 링 판매는 각각 70%, 48% 신장했다. 헬스용품은 스쿼터 107%, 복근운동기구 13%, 로잉머신 11% 등 판매량이 늘었다.

높아진 인기로 따라이색 전용 슈즈 등을 구비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다. 실제, 같은 기간동안 배구화(153%), 암벽화(31%) 등의 판매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브랜드 제품만을 선호하기 보다, 제품력 꼼꼼히 따져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SNS 등을 기반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한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신세계백 “얼어붙은 소비심리 녹여라”

# 700억대 해외 명품 할인전... 최대 80% ↓

설 행사 이어 내일부터 4일간 진행  
200여개 브랜드 인기상품 총집합

신세계백화점이 설 행사에 이어 명품 할인 행사를 앞세워 소비 진작에 나선다. 올해 설 선물행사 실적이 전년 대비 7.2% 신장하며 출발을 한 신세계백화점은 명품 할인행사를 연이어 펼쳐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해외 유명브랜드 대전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강남점,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200여개 브랜드 700억대의 물량으로, 최대 80% 할인된 인기상품을 모아 올 상반기 명품 쇼핑의 절호의 기회가 될 예정이다.

먼저 신세계백화점만의 강점인 분더샵 여성·남성, 분주니어 등 직접 운영하는 의류 편집숍의 대표 상품뿐만 아니라 슈컬렉션 등 다양한 잡화도 준비했다. 3.1 필립립, 아크네스튜디오, 드리스반노튼, 마르니, 오프화이트, 베트멍 등이 참여하는 분더샵 여성 제품은 최대 80%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다. 분더샵 남성 역시 인기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내놨다.

슈컬렉션에서는 여성 구두를 최대 70% 저렴하게 선보인다. 아동복 할인행사도 풍성하게 연다. 최대 70%의 할인율을 자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 전경.

/신세계백화점

랑하는 ‘분주니어’는 스텔라맥카르티, MSGM, 겐조 등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 상품은 스텔라맥카르티 원피스 8만원대, MSGM 맨투맨티셔츠 9만원대, 겐조 바지 6만원대다.

신세계가 직접 만든 프리미엄 캐시미어 브랜드인 ‘텔라라나’도 참여한다.

최고급 이탈리아 캐시미어 원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우아함을 살린 니트웨어를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간절기에 활용하기 좋은 긴 팔 니트와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이너웨어 등을 선보인다.

또한 요지아마모토, 메종 마르지엘라,

엠포리아오르마니 등 인기 컨템포러리 브랜드도 참여해 트렌드 세터들의 환영을 받을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이 해외 명품 할인행사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소비심리가 주춤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외 명품은 홀로 고신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 손문국 부사장은 “설 행사 실적 호조에 이어 대규모 명품행사로 고객 몰이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와 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만큼 연중 최고의 명품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롯데홈쇼핑, 4050 브랜드 ‘라우렐’ 론칭

패션 단독 브랜드 비중 40% 목표

롯데홈쇼핑은 오는 14일, 40년 전통의 독일 패션 브랜드 ‘라우렐(Laurel)’을 단독 론칭한다고 12일 밝혔다.

‘라우렐’은 명품 패션 그룹 에스카다의 창업주 볼프강 레이가 1978년 출시한 브랜드로,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280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고급스러우면서 실용적인 스타일로 유럽의 40, 50대 여성들로부터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라우렐’을 통해 지난해 패션 매출에서 30%였던 단독 브랜드 비중을 올해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4일 오전 8시 15분부터 130분 동안 진행되는 론칭 방송에서는 트렌치코트, 원피스, 니트 등 이번 봄 시즌 신상품 3종을 선보인다.

지난 1일부터 온라인몰을 통해 사전주문을 받은 결과 현재(11일)까지 주문수량 630여 건, 주문금액 약 7000 만원을 기록 중이다. 론칭 기념 사전 이벤트에도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이미 높은 상태다. 현재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트렌치코트’는 착용감과 신축성이 우수하며, 탈부착 가능한 허리 벨트로 여성스러운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이태리 캐시미어 울 원피스+숄더기던 세트’는 캐시미어와 울을 혼방했으며, 차콜, 블루, 베이지, 페일 핑크 등 고급스러운 색상이 돋보인다. 또한 간절기 대표 아이템인 ‘홀가먼트 메리노울100니트 2종’도 선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생동감 있는 색감이 특징



독일 패션 브랜드 라우렐 론칭.

/롯데홈쇼핑

인 기존 ‘라우렐’의 브랜드 성격을 유지하는 한편, ‘컴퍼터블 럭셔리(Comfortable Luxury)’, 즉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제안하다’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국내 4050대 여성 고객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가격대 등을 반영해 ‘라우렐’을 재해석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롯데홈쇼핑을 통해 패션 상품을 구매한 중장년층 여성 고객의 쇼핑 패턴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또한 세련된 스타일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친근함까지 갖춘 배우 한고은을 모델로 선정해 초반 주목도를 높일 예정이다.

황범석 롯데홈쇼핑 상품본부장은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부터 ‘패션 이즈 롯데(Fashion is LOTTE)’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 니즈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단독 패션 브랜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며, “홈쇼핑 메가 브랜드로 꼽히는 LBL, 조르주 레쉬를 잇는 롯데홈쇼핑 대표 브랜드로 ‘라우렐’을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객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패션 브랜드를 꾸준히 기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빚스, 하이엔드 스테이크 시장 공략 본격화

전매장 ‘토마호크&포터하우스’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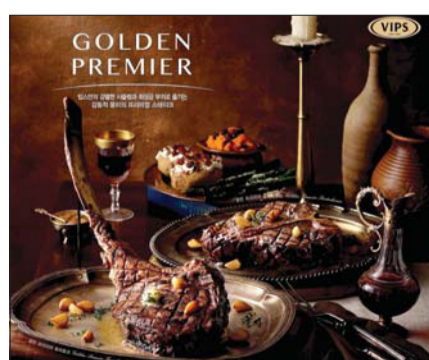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빚스(VIPS)가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스테이크 시장 공략에 나선다. CJ푸드빌은 빚스 전매장에 최고급 스테이크인 ‘토마호크&포터하우스’ (사진)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론칭 22년을 맞은 빚스는 ‘프리미엄 스테이크하우스’의 명성에 걸맞게, 스테이크의 전문성 강화와 고급화에 집중해 왔다. 스테이크 경험이 많은 요숙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부위와 중량, 육즙과 풍미에서 압도적 우월함을 자랑하는 ‘골든프리미어 스테이크’ 2종인 ‘토마호크’와

‘포터하우스’를 전매장에 선보인다.

빚스는 먼저 ‘토마호크’와 ‘포터하우스’를 일부 매장에서 2개월간 테스트 판매했으며, 자체 조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어 빚스 전매장에 출시하게 됐다.

‘골든프리미어 토마호크’는 긴 갈비뼈를 따라 꽃등심 등이 붙은 도끼 모양의 스테이크로, 고급 부위를 한 번에 제공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650g부터 1000g까지 중량별로 선택 주문 가능하다. ‘골든프리미어 포터하우스’는 거대한 ‘T’자 모양 뼈에 두툼한 안심과 등심 2가지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스테이크다. ‘골든프리미어 스테이크’는 빚스에서



자체 개발한 특별한 접시인 ‘골든 플레이트’를 사용해 스테이크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황금색 유기 접시(놋접시)를 250도까지 달군 후 스테이크를 올려 내는데, 온도가 오래 유지돼 마지막 한 점까지 최상의 스테이크 맛으로 즐길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풀무원, 냉동 가정간편식 ‘오뎅나베’ 선보

풀무원이 가정에서도 이자카야의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일본식 어묵전골요리를 선보였다. 풀무원식품은 ‘찬마루 오뎅나베 가쓰오’와 ‘찬마루 오뎅나베 해물’ 2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가정간편식 어묵탕 제품들은 주로 상온이나 냉장유통을 위해 분말이나 액상소스를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소위 ‘분식집 오뎅 국물’ 스타일의 멸치 육수 국물 맛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풀무원의 ‘찬마루 오뎅나베’는 국내 브



랜드 최초로 전골 육수를 그대로 농축해 일린 냉동 블록소스를 활용해 집에서 5분 만에 이자카야 수준의 오뎅나베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풀무원의 ‘찬마루 오뎅나베’는 9가지 종류의 푸짐한 건더기가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제약協,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와 협업

# 중앙亞 제약한류 전파한다

양국 제약산업 발전 MOU체결  
우즈벡, 제약산업 유치 팔걸어  
의약품시장 연평균 6% 성장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와 손을 잡는다.

협회는 오는 14일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와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협회와의 MOU에 이어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한양행, 다림바이오텍, 경동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국내 제약기업들과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최근 우즈벡은 제약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우즈벡 내 비즈니스 환경이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날 ▲한국 기업들의 우즈벡 투자진출(제조소 및 연구소) 및 원료의약품, 벌크 수출 지원 ▲기업 간 무역·투자·파트너사 지원 ▲진출 시 장벽 파악 및 해결방안 제안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개최 지원 ▲양국 정보교류 활성화 조항 등에 대한 협업을 약속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양국의 협력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우즈벡의 의약품 인허가와 전반적인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제약산업발전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우즈벡 의약품 시장 현황과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즈벡과의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어렵사리 압둘라예브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 회장을 모신 만큼 설명회에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그 동안 우즈벡과의 협업을 위해 꾸준히 교류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에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우즈벡 의약품 시장은 약 6조원 대 규모로 지난 2015년 이후 연평균 6%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는다. 우즈벡 정부는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하고 기업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베이코리아 흥윤희 이사(좌), 휴먼스케어 장민후 대표

/이베이코리아

## 옥션-휴먼스케어

# 환자 커뮤니티 플랫폼 '연계' 헬스케어 상품 정보 등 제공

이베이코리아는 자사가 운영하는 옥션이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어와 '옥션-휴먼스케어 환자 커뮤니티 플랫폼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 이베이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베이코리아 기업커뮤니케이션팀 흥윤희 이사와 휴먼스케어 장민후 대표 등이 참석해 양사의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옥션케어플러스와 휴먼스케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옥션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휴먼스케어 커뮤니티에서도 소개한다. 또한 공동 마케팅, 헬스케어 상품 정보 교류 등 환우 커뮤니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션은 국내 오픈마켓 최초 장애-실버용품 전문관인 '케어플러스'를 운영하며 국내 25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 만성질환 및 장기간요양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정보가 부족해 구매가 어려웠던 의료기구나 장애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장애용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스타트업들의 판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동휠체어를 전동으로 바꿔주는 전동키토 '토도드라이브', 점자 스마트워치 '닷워치'를 발굴, 소개했

다. 지난해 발달장애용품 코너도 신설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비장애인이 경계없이 입을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류 '모카썸위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휴먼스케어'는 개인 건강기록서비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난치, 희귀질환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제약사, 연구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환자들에게 데이터 유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회사다.

이베이코리아 기업커뮤니케이션팀 흥윤희 이사는 "장애용품의 경우 동료 환우-장애인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휴먼스케어의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커뮤니티 서비스에 잠재력이 높다고 본다"며 "환우-가족들의 정보 참여를 통해 장애-실버용품 시장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어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케어랩스 등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 X가 개발한 클레이튼의 의료 분야 첫번째 공식 파트너로 합류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갱년기 여성 위한 '포에버 퀸' 출시

##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CJ제일제당이 여성 갱년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포에버퀸'을 출시하고, 신제품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에버퀸'은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신체·정신적 건강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CJ제일제당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4065세대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에버퀸'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에버퀸 토탈케어'와 뼈와 관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포에버퀸 액션케어' 두 가지다.

'포에버퀸 토탈케어'는 갱년기 여성이 가장 큰 고민으로 꼽는 고민인 홍조, 불면, 피로, 두통에 탁월한 화화나무열매추출물로 만들었다. 화화나무열매추출물은 식약처에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료 기능성을 인

증 받았으며, 갱년기 기능성에 대해 국내외 총 8가지 특허를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다. 또한 인체시험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 평가지수인 '쿠퍼만 지수'가 개선된 점도 검증됐다.

CJ제일제당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화화나무열매추출물에 대한 철저한 연구분석을 8년 이상 걸쳐 100% 식물성으로 만든 '포에버퀸 토탈케어'를 선보였다. 특히 기존 여성 갱년기 건강식품과 달리 출시된 제품 중 유일하게 제형의 모양을 잡아주는 부형제 또한 해조갑썬, 목화씨유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 등 100%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부재료로는 당귀추출물, 발아발효콩추출물, 은행잎추출물, 카모마일 추출물, 세인트존스스위트 등을 활용했다. 여기에 항산화에 좋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을 함유한 'CJ석류초발효물'을 더했다. 'CJ석류초발효물'은 CJ제일제당이 축적한 발효기술을 통해 만든 소재다.

'포에버퀸 액션케어'는 골밀도, 관절,



연골 등 종합적인 뼈 건강과 에너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대두이소플라본, 식이유황, 비타민B2 등을 주 원료로 사용했으며, 생강버드나무추출물 등을 부원료로 넣었다. 이 제품은 '포에버퀸 토탈케어'와 함께 섭취시 전체적인 여성 갱년기 건강관리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한편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1200억원 규모로 홍삼, 달맞이꽃종자유 등의 유지류, 석류 농축액, 백수오 등의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증받은 화화나무열매추출물의 기능성과 100% 식물성이라는 점을 앞세워 이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용기자 parkiu7854@

# 건강검진기관, 3번 연속 '미흡'뎀 지정 취소

이제부터 3번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은 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인력 등에 대한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준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

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비위생 업체 2곳 적발

브레드어클락과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 제조업체 두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렌타인데이(14일)를 맞아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천호엔케어 배우 김병철 '아이키썬' 모델 발탁

천호엔케어가 새롭게 출시하는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아이키썬'의 모델로 드라마 'SKY캐슬'에서 차민혁 교수로 열연을 펼친 배우 김병철을 발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철은 연일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며 인기리에 종영된 JTBC 드라마 'SKY캐슬'에서 극중 로스쿨 교수이자 쌍둥이 아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로 '야망의 화신'으로 불렸던 차민혁 교수로 열연을 펼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에서 김병철은 아내와 두 아들을 타박하는 권위적인 가장이지만 가끔씩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모로 남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광고영상에서는 자녀의 키 성장과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천호엔케어의 건강기능식품 '아이키썬'이 소개되며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의 주요 특

징을 유머러스한 스토리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영상에서 김병철은 자녀에게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큰 사람이 아닌 '키가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여 재미를 선사한다. 김병철은 '맛있게 큰사람 만드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아이키썬'을 소개하며 친근하고 코믹한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천호엔케어 관계자는 "2019년 새롭게 선보이는 천호엔케어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아이키썬'의 출시를 맞아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병철 씨를 모델로 발탁해 기존 드라마의 캐릭터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친근한 반전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 KCC 임직원, 겨울철 소외이웃에 성금 기탁

### 연탄은행·주사랑공동체 방문·기부

KCC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0만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KCC는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과 서울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 설립 기관인 주사랑공동체를 각각 방문해 성금 500만원씩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KCC 사내 커피 머신 앞에 놓인 모금함에 임직원들이 한해 동안 적립해 마련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발적으로 적립한 것이 1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연탄은행은 성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월부터는 연탄 후원도 줄어들고, 연탄값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KCC의 작은 정성이 이들에게도



KCC는 지난 11일 서울연탄은행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왼쪽부터)KCC 김상준 부장, 정화민 이사, 서울연탄은행 허기복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사랑 공동체에 기부한 성금은 베이비박스유기영아

지원 등 전체적인 베이비룸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스마트 파이프'로 진화하려면



### 기자 수첩

김 나 인  
(산업부)

바야흐로 '미디어 빅뱅' 시대. 미국 미디어 업계에 부는 지각변동이 무섭다. 2위 통신사 AT&T는 2014년 미국 최대 위성TV '디렉TV'를 인수한 데 이어 영화사 워너브러더스, 케이블뉴스 CN N, 음반, 잡지사를 소유한 거대 콘텐츠 그룹인 타임워너도 합병했다.

마키마우스가 상징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였던 월트 디즈니는 픽사, 마블, 스포츠채널 ESPN을 사들인 데 이어 지난해 21세기 폭스를 거액에 인수해 20개 채널과 영화 스튜디오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자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 플러스'로 '넷플릭스'와의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AT&T도 워너미디어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 공통점은 통신사가 TV채널과 영화, 잡지 등을 보유하고 콘텐츠 제작사가 채널을 확보한 '수직결합'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각각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보급한 셈이다.

국내도 유료방송 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내 3위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도 다양한 케이블TV 인수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다. 부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순 네트워크인 '바보 파이프(dump pipe)'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 통신사들의 '빅딜' 움직임이다. 어떤 M&A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 순위 계단을 단숨에 오르는 '보증수표'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M&A 움직임은 단순히 어느 통신사의 모 케이블TV 인수 등 단편적인 가입자 확보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눈앞의 가입자 보다 콘텐츠다. 랜들 스티븐슨 AT&T 회장은 타임워너를 인수하며 "프리미엄 콘텐츠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지상파의 결합은 각각 양쪽에 부족한 콘텐츠와 플랫폼의 목마름을 채웠다는 데서 의미 있는 결합으로 꼽힌다. 5G 시대를 주름잡는 '스마트한 파이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똑똑한 결합이 필요하다.

/silki@metroseoul.co.kr

## 카카오게임즈 초등생 대상 진로 멘토링 교육

카카오게임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오프라인 체험 전시전 '카카오게임 뮤지엄'에서 초등학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게임 뮤지엄은 지난해 10월 카카오게임즈가 '카카오프렌즈'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키와 협업해 흥대 카카오프렌즈 뮤지엄에 개관한 전시 프로젝트다. '카카오배틀그라운드', '프렌즈레이싱', '검은사막' 등 카카오게임의 대표 콘텐츠를 전시 문화와 접목했다.

카카오게임 뮤지엄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 리더십 진로 멘토링 및 체험 교육'의 일환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1일 100여명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은석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게임 업계 최근, 취업 방향성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카카오



'카카오게임 뮤지엄'에서 진행된 진로 멘토링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뮤지엄을 소개하고, '프렌즈레이싱'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에게 한정판 '우주 라이언 보조배터리'를 증정했다. /김나인 기자 silki@

오늘의 운세 2월 13일 (음 1월 9일) http://www.saju4000.com

- 48년생** 용띠, 닭띠와의 거래가 손조롭다. 60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어 이득이 많은 날. 72년생 고집을 세우면 가족에게도 외면당하는 법. 84년생 망국의 옥새는 그냥 전시물에 지나지 않는다.
- 49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1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나니 주의. 73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8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편안한 하루가 된다.
- 50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62년생 마른 눈에 물 들어 오듯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 7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86년생 성공의 기운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
- 51년생** 오늘의 재물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결과이다. 63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75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은 하지 마라. 87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아서 판단.
- 52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64년생 확실한 거절이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한다. 76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뿔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88년생 향수를 뿌리면 아름다운 인연이 오히려 돌아온다.
- 53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날아갈 듯. 65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7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89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 5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6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도 없이 마무리된다. 78년생 99%의 노력도 1%의 영감으로 결실을 본다. 90년생 힘든 일은 선배님의 도움으로 해결.
- 55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67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79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든 참여. 91년생 외로움보다 참가 힘든 건 그리움이 아닐까.
- 56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8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8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92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 5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미리 피하라. 69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나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81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 가서 분품이랄 듯. 9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못가신 신경 쓰지 마라.
- 58년생**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겨볼 일. 70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들 기준에 따를 필요 없다. 82년생 좋은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9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으로.
- 59년생** 덕이 높은 숨은 실력이 드러나니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7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83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95년생 매매도장 찍을 일이 있으니 원행은 미루라.



## 김상회의四季

### 나이 들수록 지갑은 열려라

장유유서의 논리가 지배하던 유교사회에서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하는 것 자체가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장로서 존경받아야 할 덕목이었지만은 현재사회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대놓고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혜롭게 나이를 먹어가는 팀으로써 여러 조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 으뜸인 것은 나이가 들수록 되도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려라."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그 외에 비슷한 논리로 노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한 빚이니 소득의 10%는 친구나 동료를 위해 투자하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팔팔하게 운동을 하라 라던가 스킨십 없이 홀로 지내면 빨리 죽는단던가 하는 여러 진중한 농담 같은 진단들이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일 자체가 조금도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씁쓸한 진실로 보이기도 한다. 혹여 사고로 일찍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 노병사(老病死)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특히 인간들만큼은 늙어 감을 여유 있게 관조하거란 싶지 않다. 수행이나 도를 통하여 해안을 얻은 사람들이 아닌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한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미래예측의 역(易)을 기본으로 하는 사주명리학의 통찰을 통해 인생의 길을 관조하는 운(運)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등바등하지 않고 삶을 바라보는 관조의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이는 많은 인생설계에 분명 도움이 되는 예측 학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좋은 기운이 오는 때에는 마음에 먹은 일을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배가의 성과가 있으며 운이 약하게 들어올 때는 조심하고 삼가는 태도를 유지하면 흥은 감소한다는 것을 역은 가르치고 있다. 지혜로운 나이 먹음이란, 때와 조화를 이루고 맞추어 노력할 줄 아는 것 이것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태도다. 명리학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하심 하는 태도로 자연과 삶과 환경에 순응해야 함을 알려주는 인문학이라 본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주역을 사서 삼경에 넣어 군자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덕목으로 삼은 것이리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3					2
2			1	9	4			3
	6		7					1
		6				1		
5			1					7
	4		5		7			8
		4		2		8		
7								6
	9		6	4	3			2

						7		
	1	2	3			9		
4		9		8		1	6	
	7		8		4			6
		8		2		5		
		3	7		6	4		
9	8			7		6		
1	2				5			
		7	6	4				2

스도쿠 정답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5	6	8	1	2	3	4	9	7
6	8	7	2	9	5	1	4	3
2	9	6	5	1	8	7	3	4
7	5	1	2	8	9	6	3	4
8	1	6	5	2	3	4	9	7
9	5	7	6	1	2	8	3	4
2	3	4	9	8	6	5	1	7

문제 제공 =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42호



# 외식업계에 부는 '신토불이 바람' 기업·농가 윈윈... 소비자는 만족



최근 외식업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국산 농·수산물을 신메뉴의 주연으로 내세우며 '농가-기업 상생 모델'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과 지역 농가의 협업으로 맛과 신선도를 보장하는 국산 농·수산물 패스트푸드와 음료 등 색다른 제품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은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할 수 있고, 농가 역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어 바람직한 상생 모델로 주목받는다. 여기에 '나를 위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가세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미노피자는 지난 2015년 '우리 농산물 피클' 출시 이후 최근 우리 고구마를 활용한 신메뉴 '우리 고구마 피자'를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가 상생을 위한 로컬 푸드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선보인 '우리 고구마 피자'는 까다롭게 엄선한 국내산 고구마를 무스와 큐브 형태로 듬뿍 올리고, 모차렐라, 카망베르, 체더 치즈와 리코타 치즈 소스 등 4가지 치즈와 와

**'농가-기업 상생모델' 잇따라**  
**도미노피자 국내산 고구마 활용**  
**본도시락 꼬막 등 제철 음식선배**  
**커피베이 산지 딸기 신메뉴 5종**

규 크럼블을 더한 프리미엄 고구마 피자다. 국내산 고구마를 활용한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살려 도미노피자만의 새로운 고구마 피자의 기준을 제시한 이번 '우리 고구마 피자'는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지난달 국내산 문어와 와규 크럼블, 가쓰오부시 등이 어우러진 신제품 '참맛 문어피자'를 출시하고 영남 및 광주 지역 총 20개 매장에서 한정 판매하여 도미노피자 경북신도청 매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도미노피자 영주점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참맛 문어피자' 판매율이 높았으며 매장을 방문한 50·60대 고객층이 지역 상품을 이용한 피자가 출시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출시한 '우리 농산



우리 고구마 피자. /도미노피자

물 피클'은 영농조합법인 도담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농가에서 직접 키운 백오이로 만든 제품으로, 출시 이후 꾸준한 오이 수급 확대를 통해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본도시락은 겨

을 신메뉴 '여수 꼬막 불고기 도시락'과 '양구 시래기 된장국 도시락' 2종을 출시했다. 현지 제철 식재료를 담아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메뉴로, 겨울을 맞아 살이 오른 전라남도 여수 꼬막과 강원도 양구 고산 분지에서 나는 최고 품질의 시래기를 활용했다. 여수 꼬막 불고기 도시락은 삼채 양념으로 무쳐낸 꼬막을 담아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긋함과 쫄깃한 식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 특히 여수 꼬막은 남도 바다의 겨울 진미라고 불리며 깊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식재료다. 양구 시래기 된장국 도시락은 해발 1100m 이상의 고산 분지인 양구 편지봉에서 생산된 무청을 전통 방식으로 70여일간 자연 건조한 시래기와 우리나라 전통 된장으로 구수한 맛을 낸 국 도시락이다.

한편 본도시락은 오징어와 우삼겹구이, 울릉도 지역에서 자란 나물이 조화를 이루는 '울릉도 한상 도시락', 제주 바다의 향이 가득한 모자반을 담은 '제주 모자반 쇠고기 미역국' 등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커피베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스와 함께 '비 가격품 팔

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상품에는 이상이 없지만 엄격한 수출 상품 규격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일부 제철 딸기의 유통과 납품을 위한 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산지와 소비자 간의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다.

커피베이는 올해 초 내놓은 제철 국내산 딸기를 활용한 신메뉴 5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비 가격품 딸기를 안정적이고 신선하게 납품받으며, 앞으로도 국내산 우수 농산물을 사용한 메뉴들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커피베이가 출시한 딸기 신메뉴 5종은 딸기와 그릭 요거트의 꿀 조합으로 매년 큰 사랑을 받았던 시그니처 음료 '딸기 뽕뽕 프라노베'를 비롯해 쿠키&바닐라 웨이크와 생딸기 당고로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스윗 뽕뽕 프라노베', 신선한 딸기와 부드러운 우유 조합의 '딸기 뽕 라떼', 제철 딸기를 듬뿍 넣은 '리얼 딸기 주스', 생딸기와 싱그러운 민트가 어우러져 청량감이 가득한 '딸기 모히또'로 구성됐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GS25, 디저트 15배 쾅쾅... 신제품 확대

전년 대비 164.4% ↑, 큰 폭 증가  
올해 밸런타인 상품 등 40종 출시



GS25가 판매하는 유어스초코베리미니케이크(왼쪽)과 유어스초코풍당딸기케이크. /GS리테일

편의점 GS25가 '편저트(편의점+디저트)'의 인기 상승에 발맞춰 관련 신제품을 더욱 확대한다.

GS25는 2018년 모찌롤, 티라미수, 조각케이크, 쿠키 등 디저트빵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61.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약 15배(1416%) 증가한 것으로, 올해(1월 1일~2월 10일) 역시 89.3%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GS25는 편의점 디저트의 높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이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카페25'의 1000~2000원대 원두커피 구매율이 높아지면

서 함께 즐기 좋은 디저트빵이 지속 출시된 점도 '편저트' 시장 확대를 이끈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GS25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종 이상의 새로운 디저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밸런타인·화이트데이 시즌 한정 상품으로 '유어스초코베리미니케이크'와 '초코풍당딸기케이크'를 선보인 바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韓-스웨덴, 젊은 디자이너 발굴 나서

이케아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개최  
올해의 주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프레드리크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부대표. /이케이

한국과 스웨덴의 디자인 교류를 확장하고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 '코리아+스웨덴 영디자인 어워드(Korea+Sweden Young Design Award)' 개최를 앞두고 12일 오전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스웨덴대사,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프레드리크 요한손(Fredrik Johansson) 이케아 코리아 부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공모전의 의미와 취지, 세부적인 공모 절차와 수상 혜택 등을 소개했다. 주한스웨덴대사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케아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최근 디자인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열정 있는 젊은 한국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의성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을 통한 '혁신'과 '지속가능성', 더 나

은 미래'라는 3가지 핵심 가치 하에 매년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며,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Inclusiveness)'이다.

나이와 성별, 배경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디자인을 경험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포용 디자인을 의미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래픽, 건축, 가구, 텍스타일, 패션 등 디자인 영역에 경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는 만 34세 이하의 한국 국적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11일 까지 독창적인 디자인 또는 디자인 콘셉트가 담긴 이미지와 디자인 소개서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말 발표되며, 총 3명의 수상자에게는 스웨덴 디자인 견학 및 다양한 전시 기회 제공 등 글로벌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CU새싹가게' 취약계층 점원, 가맹점주로

BGF리테일 자활사업 결실



자활기업 '드림팀'의 김은희 대표점주(왼쪽에서 두번째)와 공동대표들. /BGF리테일

BGF리테일은 'CU새싹가게'에서 근무하던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이 CU 가맹점 사장님으로 창업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CU새싹가게'는 편의점 CU의 안정적인 가맹 시스템을 자활근로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 및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CSV(공유가치창출) 모델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47개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달부터 CU부천나눔점의 가맹점주가 된 자활기업 '드림팀'은 자활 참여주민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가맹점주가 된

첫 번째 사례다. 이들은 청소사업, 택배 및 생수 배송 사업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10월부터 'CU 새싹가게' 자활사업에 참여했다. /김민서 기자

## 중·고교 신입생 13%, 입학 때 교복 못 입는다

무상교복 현물 지급... 납품 늦어져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의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시행되면서, 2019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이 최대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학년도 동복 생산 진척도는 전년 대비 80%

정도로 11만 5000세트의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입생 수의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늦게 받는 등 10명 중 1명 이상이 입학 시에 교복을 못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복업체는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등의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업체 배정이 늦게 발표된 영향으로 인해 올해 3월

말 정도가 돼야 모든 지역에 대한 동복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최종 결정된 지자체는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총 9개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8월 안까지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학교 기준 60%만 입찰이 진행됐으며,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지연 입찰을 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복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김민서 기자



www.pdna.co.kr

# 다시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새롭게 태어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피 디 엔 에 이 크림 & 세 럼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찢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없었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병풀추출물, 어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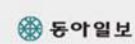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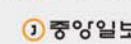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완도군이 지난해 10월 군청 광장에서 일선 민원부서에 전기자동차 전달했다.

### 완도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완도군은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전기자동차 17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6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전기자동차 22대(관용 10, 민간 12),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조금을 차종별 최대 1,560만원, 전기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성능이 개선되어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가 300km 이상인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기 18기(급속7, 완속11)를 설치·운영 중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법인·단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남 완도=이제민 기자 wando1106@

### 청년농업인에 1.25억 투입... 지원 확대

안성농업기술센터, 전년비 78% 증액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 및 지원을 대폭 확대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우선 4월 청년농업인(4-H회 가입회원) 대상 청년농업인 리더교육(스피치 및 PT교육 등)을 시작으로 2019년 청년농업인 발전 교육 및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 청년농업인 4-H회원은 약 74명으로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청년농업인 4-H회원 대상 시범사업은 총 1억2500만원(5개소)으로 도비 및 시비사업 증가로 작년 대비 78% 이상 금액이 증액됐다.

이경애 소장은 "청년농업인 4-H회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자격증교육, 스피치교육, PT교육, 작목교육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특히 스피치, PT 교육을 통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공모 시범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업은 안성시 4-H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입 자격은 영농에 종사하는 40세미만의 안성시민으로, 가입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귀농 육성팀으로 하면 된다.

/안성=이보현 기자 bhlee7777@

### 부산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개최

25일부터 8월까지 총 5회 진행 부산시는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와 '소상공인 경영전략컨설팅'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 강좌에 이어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열 계획이다. 이 강좌는 11개 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배치해 ▲기업가 정신 ▲상권입지 선정 ▲온라인마케팅 ▲점포계약 및 세무 등 실천교육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카데미'는 지난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201명이 수료하면서 교육 만족도가 85%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원인분석 및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도 추진한다.

/부산=최인택 기자 rem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5 | 해질 / 18:08

2월 13일(수) 음력 : 1월 9일

수도권 날씨 -5 ~ -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예타 3조 서남 관광벨트 활성화”

(예비타당성 조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설전후 ‘천사대교’ 이용률 4.5만 관광 콘텐츠 개발로 홍보 힘써야”



하자”며 “특히 이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및 도정 이미지 홍보에도 힘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정부의 예비타당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12일 “천사대교와 목포 케이블카 개통 등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의 도약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에 힘써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설을 전후해 7일 동안 임시 개통한 천사대교의 이용 차량이 무려 4만5000여 대나 되고, 이 가운데 관광객이 65%를 차지해 예상보다 많았다”며 “3월 말 정식 개통되고,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4월부터 운행하면 봄철 관광시즌과 맞물려 서남권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해 관광 훈풍이 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기회를 활용해 관광객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조속히 보완

성조사 면제사업에 국도77호선 단절구간 인압해~화원, 화태~백야간 연결사업 등이 선정되고, 경전선 전철화사업이 예타 재조사 사업으로 명시돼 사실상 2조9000억 원의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이 예정보다 앞당겨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신안 하의도 등 국도2호선 단절구간 연결과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이순신 호국벨트 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2단계사업도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김 지사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정부 일자리정책에 맞춰 전남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조업의 토대 위에서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김 지사는 “세계적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전라남도,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우선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수립토록 하고, 정부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도가 앞장서 실현되도록 하는 등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잘 추진해준 직원들께 감사하고, 특히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및 검역에 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줘 차단이 잘 이뤄졌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때까지 방심해선 안 되므로, 전남이 청정지역 위상을 지켜나가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봉태경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기아차 광주공장,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

공장장·임원 등 300여명 참석 무재해기 입장·결의문 낭독 등



12일 2019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에서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안전 구호를 외치며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2일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2019년 재해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원, 부서장, 그룹장 등 관리감독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2019년 무재해 안전사업장 구현하고 재해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무재해기 입장,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문 낭독, 안전구호 제창, 무재해 목표 달성 결의문 서명순으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기아차 임직원들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9년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작업장내 잠재위험을 발굴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선다 ▲나의 건강이 가족과 회사의 버팀목임을 항상 인지하고 관리한다 ▲원화청 공생 협력을 통하여 6대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선제적 환경설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 안전한 광주공장 구축에 적극 앞장선다 6가지 항목에 대해 결의하고, 전 임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공장별로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문을 게시하고, 부서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 결의문을 확대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안전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광주공장의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함께 안전한 광주공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금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현장에서부터 안전마인드 확립을 통해 재해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봉태경 기자 bcy2020@

##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전

드라마 촬영지 등 257곳 상품 개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유치 활동 강화에 나선다.

도와 공사는 한류 활용 관광상품 개발, 20~30대 개별관광객 공략을 위한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강화, 교통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매력 있는 경기도, 가고 싶은 경기도, 가기 쉬운 경기도 등 3대 분야로 나눠 외국인 관광객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매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역사·체험 탐방지 외에 드라마나

아이돌그룹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257곳 1179건의 관광자원을 개발했다. 도 등은 이들 관광지를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가고 싶은 경기도’를 위해서는 국내외 여행업계와 함께 다양한 특수목적 상품개발 및 해외 온라인·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수목적 상품(Special Interest Travel)은 김치만들기 체험, 단체 간 교류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관광상품을 말한다. 도는 특수목적 상품으로 프로듀스 101 촬영지인 한류트레이닝 센터에서의 K-POP 아이돌 따라 하기, 도내 전통시장과 연계한 한식만들기 체험 같은 10여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불법 식자재업소 12곳 적발 인천특사경, 입건수사 실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 등을 적발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미세먼지 심한날엔...

# 공해차량 40만대 운행 금지

### 서울시, 노후 경유차 등 차량제한 운행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공해차량 40만대는 서울시 내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 40만대는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만 운행이 제한됐지만,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함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8만대 늘어 40만대로 확대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매년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시장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 사업자에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상먼지 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단축·조정이 이

뤄진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가동시간이 변경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 총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상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곳은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민선 5·6기 서울시정, '포용·전환·협치' 성과는?

서울연구원, 시정 의의·성과 조명

서울연구원은 민선5·6기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조명하는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용·전환·협치라는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지난 민선5·6기를 돌아보고, 민선 7기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포용도시시는 2010년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도출된 사회의 제1차 정책담론이다. 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평가한다.

전환도시시는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 모델이다. 원전하나 줄이기, 자원순환 도시, 보행친화 도시 같은 에너지 정

책 전환을 집중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 도시로 진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협치도시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 원리를 지향한다. 서울시정이 과거 관 주도의 일방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가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펼쳐온 정책적 노력(정책토론회, 정책박람회, 현장시정장 등)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서양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 민선5·6기 서울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였다"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기치로 한 민선 7기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3無 혁신학교 세운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는 3無(무교수, 무교재, 무학비) 혁신학교가 서울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인 '에폴42'를 벤치마킹했다. 에폴42는 2013년 파리에 민간 주도로 설립된 대안 교육 기관으로 학생 주도적 학습과 게이미피케이션(플래그 게임과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론을 학습하는 것) 등의 교육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시는 혁신학교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업수요 발굴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생 선발 등을 담당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 추가 조성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를 추가 조성한다.

경기도는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 삶의 중심! 경기도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와 17개 세부과제를 통해 '미래사회, 함께 길을 찾는 도서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확충, 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제4차 산업기술 기반 도서관서비스 개발, 남북도서관 교류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도서관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오는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관을 신규로 건립해 325개관까지 확충하고, 노후도서관 35개관의 리모델링과 생활 SOC 작은도서관 142개소 조성도 추진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지식으로 소통하는 도서관'은 이용자 맞춤형 독서서비스 개발, 지역자료 아카이빙, 장서관리, 작은도서관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등 지식정보를 매개로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기능 강화, 정보 불평등 개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공간구성, 도서관 홍보 확대 등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네 번째 '도서관의 허브,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보건용 마스크 누설률 시험장비 및 챔버.

/서울시

## 서울시, 보건용 마스크 품질검사 강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검사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측정하는 누설률 시험 장비를 새로 도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 장비 2대도 추가 구매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연구원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하는 안면부 흡입 저항 시험 장비와 분진포집 효율 시험 장비를 전부 갖추게 됐다. 이로써 연구원은 마스크 품질 관리를 위한 모든 기준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누설률 시험은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시험 항목이다. 자체 시험환경을 갖춘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전국 검사기관 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5곳만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건용 마스크 업체는 86곳이며, 총 491품목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중 357건이 최근 3년간 신규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15년 대비 266% 증가한 것이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마스크 수요에 따라 품질 관리를 강화해 규격에 맞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목동~청량리 잇는 '강북순환선' 건설 추진

서울시, 사업비 약 2조원 투입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를 잇는 경전철 '강북순환선' 건설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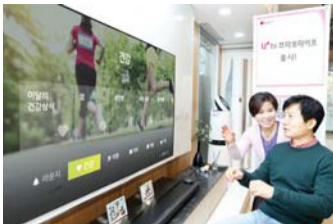
12일 시에 따르면 강북순환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긴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강북순환선은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강북을 좌우로 관통하는 지하철이다. 총 길이는 24.8km이며,

15개 역이 들어선다.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치며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을 내놨다. 당시 박 시장은 면목선(청량리역~신내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 우이신설 연장선(우이역~방학역)을 2022년 이전에 조기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강북순환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산업] LGU+ 전 세대 망라한 콘텐츠 미디어사 06



Life

[마켓] 한국거래소 주요 추진사업 발표 업종별 상장심사 도입 08



# 2000년전 백제문화 간직한 몽촌토성 남한산서 뺨은 구릉 따라 한성백제 왕도길 거닐다

몽촌토성 산책로.

/유투이미지

## 되살아나는 서울

### 41 송파구 '몽촌토성'

고구려 동명왕의 셋째 아들 온조는 기원전 18년 한강 남쪽에 정착해 한성(서울)백제 시대를 열었다. 한성백제는 백제가 475년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 하남위례성을 도읍으로 하던 초기 백제 시대를 일컫는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백제의 전기 수도인 하남위례성의 위치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88올림픽을 전후로 공원 정비를 위한 발굴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초기 백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서울대학교에 송파구 일대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를 통해 성벽과 외성, 목책과 해자 등이 확인됐다. 동전무늬토기를 포함해 금동제 허리띠장식, 말 족쇄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세발토기, 굽다리 접시 등 백제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릇이 많이 발견됐다.

당시 몽촌토성 발굴 현장 책임자였던 임영진 전남대 교수는 "한국고고학계는 3~5세기 백제유물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1980년대 몽촌토성과 석촌동고분군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 특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백제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자 역사·고고학계에서는 몽촌토성이 백제 왕성일 것이라는 설이 힘을 얻게됐다. 그러나 1997년 풍납토성 발굴이 진행되면서 백제왕성에 대한 학계 정설이 뒤집혔다. 풍납토성에서 제사시설터와 왕궁 우물인 어정(御井)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각각 백제 한성의 남성과 북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한성의 북성이 함락되자 남성에 있던 백제 개로왕이 급히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다가 고구려군에 붙잡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평상시에는 풍납토성에서, 전쟁 등 유사시에는 몽촌토성이 왕성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 ◆백제 전성기를 만나다

지난 10일 찬란했던 초기 백제시대를 만나기 위해 몽촌토성을 찾았다. 야산의 지형을 활용해 만든 백제시대 토성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10일 몽촌토성 일대에서는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몽촌토성 산책길을 걷고 있다.



몽촌토성 역사관에 전시된 소뿔로 만든 뺨갓은 몽촌토성 발굴 과정에서 출토됐다. /김현정 기자

### 88올림픽 전후 공원정비 위해 발굴 성벽·목책·토기 등 백제 유물 발견

### 20년간 문화재 발굴 작업 진행 중 체계적 도시계획 근거 유적 발굴도 야생동물로부터 문화재 보호 시급

위치해 있다.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뺨내린 자연 구릉을 이용해 만든 토성이다. 선조들은 구릉이 낮거나 굽긴 곳에만 점토를 쌓아 올려 성을 만들었다. 성벽 전체 길이는 약 2.38km이며, 높이는 6~40m로 지점마다 다르다.

동남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내천이 동쪽과 북쪽, 서쪽 성벽을 감싸고 돌아 해자 역할을 했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연못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날 몽촌토성을 방문한 이지연(24) 씨는 "올림픽공원에 나홀로나무가 있다고 해서 친구랑

한번 와 봤다"면서 "여기가 초기 백제 때 수도인 지도 몰랐고, 몽촌토성이 수도를 지키기 위한 성인지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수줍게 웃었다.

송파구 주민 김태형(45) 씨는 "산책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족들과 운동할 겸 해서 자주 나온다"며 "그냥 평범한 동네 언덕처럼 보여서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인지 몰랐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송파구는 지난 2017년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몽촌토성 탐방로를 정비했다. 상부구간과 하부구간 연결 탐방로의 나무계단 6곳을 데크 계단으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당시 구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사적지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몽촌토성을 찾는 구민들이 문화재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에 자리한 몽촌토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 ◆토끼·두더지 공격 받는 문화재

사람들의 무관심 외에 더 큰 문제점도 발견됐다. 문화재가 토끼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몽촌토성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까악~' 소리가 들려 근처로 가봤다. 사람들이 웅기웅기 모여 핸드폰 카메라로 무엇인가를 찍고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한 토끼 두 마리였다. 옆에는 경교문도 붙어 있었다.

꽃말에는 "애완용 토끼는 자연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몽촌토성에 굴을 파서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애완용 토끼를 방사하거나 먹이를 주고 키우는 행위를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애완동물은 문화재를 망치는 주범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언덕 한 가운데에는 두더지 퇴치기도 설치돼 있었다. 진동을 발생시켜 두더지를 내쫓는 장비였다. 2000년 왕도 서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문화재를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한편, 현재 몽촌토성 일대에서는 20년 넘게 문화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몽촌토성에서는 당시 백제왕도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근거가 되는 유적이 발굴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